소년단

1963.8

동시

순이의 마음

=어느날 이른 새벽에 있은 일=

김 학 연

기차가 달리네 폭 폭 칙…칙…
차창 넘어 바라 뵈는 밀보리 바다,
차창 넘어 바라 뵈는 푸른 논 바다.

차'간마다 입살이 가득 찬 기차,
내 고향 남쪽으로 달리는 기차.
뜨락또르 운전수도 손을 흔드네
어서 어서 달려 가라 그러는 게지…

창 넘어 또 모여 오네
내 나라 남 북으로 끊어 놓은 패말
분계선 패말이 보여 오네
산에도 들에도, 철'길우에도
빕살스레 서 있는 패말과 패말.

야! 그런데 저걸좀 바요.
내가 탄 기차가 짓부시며 달리네
분계선 패말을 짓부시며 달리네
차안의 사람들도 들'길의 사람들도
만세를 부르네, 서로 얼싸 안네.

어느새 왔는지, 남쪽 땅 내 고향에,
기차는 닿았네, 입쌀 10만석 한가득싣고.
두 살적에 내가 떠난 수점'골
할머니 사신다는 내고향 수점'골

불쌍도 하구나, 먹을것 못 먹는
수점'골 아이들, 남조선 아이들.
미국놈의 구두'발에 미국놈의 총칼에
채이며 쓰러지는
수점'골 아이들, 남조선 아이들.

아 저분이 내 할머니 아닐가?
사진에서 본 할머니
—할머니! 여기 순이가 왔어요.
얼마나 배고프세요.
자, 이 쌀을 받으세요
김 일성 원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머니, 울지마세요.
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로 가시자요,
이 차를 타세요,
정말 행복한 세상이랍니다.
저 쌀은 수점'골 아이들께 다 주고
어서 나랑 같이 가세요.

뿌—ㅇ 기적소리…
기적 소리 울리자 문득
나는 두 눈을 떴네.
(아이 꿈이였구나, 이를 어쩌나?)
나의 두 볼은 젖어 있었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네.

이때에 벽에서 원수님 미소하시네,
나를 내려다 보시네, 말씀해 주시네.
—수점'골 할머니를 위하여
순이는 공부를 더 잘 하여라,
열심히 배워서 혁명 전사로 되여라…
창 밖을 바라보니 남쪽 하늘로.
은하수가 흘러가네, 흘러가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3년 8호

내 용

표지 1면—청봉 숙영지를 찾아서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 시절

제 5 회

강 효순

그림 최 순천

1923년 가을이였습니다. 강 진석 선생은 평양에 나와서 동지도 만나 보고 군자금도 모집하는 등 공작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황해도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가지고 있던 권총이 고장이 났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개인이 경영하는 철공소라고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큰 철공소는 일본놈의 병기창 뿐이였고 그 밖에는 그리 크지 않은 철공소이기는 하지만은 숭실 학교 기계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권총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숭실 학교 기계창에 부탁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마침 숭실 학교에는 강 진석 선생의 먼 친척인 강 병필이란 자가 숭실 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숭실 학교에 들어 왔던 것입니다.

강 진석 선생은 이자를 친척이라고 든든히 믿고 조용히 찾아 가서 권총을 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자는 쾌히 승낙하면서 깊은 동정까지 표시하였습니다. 놈들의 눈에 띄일 수 있으니 권총을 찾으려 오지 말고 려관에 있으면 자기가 가져다 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강 진석 선생은 그 자의 말을 그 대로 믿고 려관과 들어 있는 방 호수까지 알려 주었습니다.

이 때 강 선생은 대동문 려관에 들어 있었는데 려관은 초가집으로 아주 작았습니다.

려관으로 돌아 온 강 선생은 황해도 지방으로 공작 나가서 할 일을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해도 지방으로 나가서 혁명 동지들을 만나 앞으로 할 일들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 난데 없는 호각 소리가 요란히 들려 왔습니다. 강 선생은 후다닥 일어 나 문틈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벌써 순사놈들이 려관을 포위하였습니다.

(호랑이에게 아이를 맡긴 격이 됐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두 주먹을 떨었습니다. 이리떼 처럼 달려 드는 놈들의 손에 그는 그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강 선생이 체포되였다는 소식은 곧 김 선생에게 전달되였습니다. 이 날 김 선생은 가슴이 미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이라기보다 혁명 동지로 기둥처럼 믿고 있던 그가 놈들에게 붙들렸구나! 하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방'바닥을 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남 몰래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체포된 사람에 대하여 원통해 하면서 그 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 선생이 하려던 공작 임무를 빨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리하여 김 선생은 강 선생이 하려던 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랴부랴 평양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때 김 선생은 칠골에 있는 청년단원들도 만나 보고 강 진석 선생의 옥중 형편도 알아 보기 위하여 잠간 칠골에 들렸던 것입니다. 이 때에 김 선생은 장인 강 돈욱 선생을 만나서 조선 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끝에 원수님의 진학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였습니다.

강 돈욱 선생은 창덕 학교 설립자이며, 교장이며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원수님의 졸업을 기다려 곧 칠골로 보내라는 것이였습니다.

그 후 김 선생은 공작 임무를 끝내고 중국으로 들어 갔습니다. 물론 이 때에 김 선생은 만경대로 달려 가고 싶은 생각이 태산 같았습니다. 칠골서 만경대는 지척이였습니다. 그러나 놈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그는 마음 놓고 고향'집을 찾아 갈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김 선생이 만경대를 떠난 후 놈들은 매일 처럼 만경대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그리운 고향'집, 그리고 보고 싶은 부모, 동생을 코 앞에 두고 만나지 못 했습니다.

그는 터질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조선이 독립되는 그 날 떳떳이 찾아 뵙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다시 북으로 발'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김 선생이 팔도구로 돌아 간지 오래지 않아서 원수님은 최우등의 성적으로 4 년제 소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은 조용한 틈을 타서 원수님을 앞에 불러 놓고 앞으로 진학할 데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네 생각에는 앞으로 어디서 어떤 학교에 다니고 싶으냐.》

김 선생은 이미 생각한 바 있었지만은 원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원수님은 림강에서부터 팔도구에 있을 때까지 언제나 중국인 학교에 다녔습니다. 교과서는 물론 중국어로 되여 있으며 내용도 중국에 대한 것이며 또 말도 중국어로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님께서는 제 나라 말로 제 나라 글을 배우는 중국 아이들보다도 언제나 공부를 더 잘 했습니다. 그러기에 팔도구에 있는 장백 현립 제 7. 소학교에 다닐 때에 그 학교 교장이던 허춘상 선생은 중국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원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타일렀습니다.

《글쎄 너희들두 생각해 봐라, 남의 나라 말로 남의 나라 글을 배우는 김 성주(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름) 학생은 그처럼 공부를 잘 하는데 너희들은 제 나라 글을 제 나라 말로 배우는데 그것들이 뭐냐, 밥그릇을 마주 앉기가 부끄럽지 않냐, 아마 밥이 입이 달렸다면 너희들의 배루는 안 들어 가겠다구 항의를 할게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학교에서 배워 주는 학습, 이외에 조선에 대한 학습도 열심으로 하였습니다. 조선 글은 학교에 들어 가기 전에 벌써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아버지로부터 조선 력사와 조선 지리에 대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분주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시

간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원수님의 지각이 점점 높아지자 배우려는 의욕이 아주 왕성해지게 되였습니다. 분망한 아버지로서는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아버지로부터 강 감찬 장군, 을지 문덕 장군, 리 순신 장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그런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구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였을가.)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그런 분들처럼 큰' 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님은 그런 장군들의 아이 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아버지께 졸라대군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선생은 재미 있게 이야기를 해 주군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동무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기 의견까지 척척 넣어 가면서 아주 구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원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만 하면 아이들은 빽 돌라 앉아서 턱을 고이고 아주 재미 있게 들었습니다. 한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졸라대군 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옛'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나라 옛'이야기보다 우리 나라 이야기가 더 재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책이라면 한사하구 읽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고 싶고 열을 알면 백이나 천을 알고 싶었습니다.

원수님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조선 책을 읽을 때는 가끔 조선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하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수님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치지 않았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건너 갈 수도 없는 일이고 할아버지네 살림이 어렵겠는데 자기까지 가서 괴로움을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는 《어디서 어떤 학교에 다니고 싶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원수님은 《어디서》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 번 말해 볼가.)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입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

습니다.

《왜 대답이 없나 ?》

아버지께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제야 원수님은 얼굴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 보며 《조선에 나가서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니 가슴이 후련해 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고생을 좀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선으로 건너 가서 조선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원수님의 대답을 들은 김 선생의 얼굴에는 만족한 웃음'빛이 넘쳐 흘렀습니다.

《나두 그렇게 생각한다. 사람은 우선 제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제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 것이 큰 탈이야!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훌륭한 유산들이 지금 진흙탕 속에서 빛을 잃구 있다! 그것을 찾아내구 빛을 내게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제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우선 알아야 한다. 물론 남의 나라의 것두 배워야지! 사람은 많이 알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제 것을 모르구 남의 것만 안다면 몸뚱이는 그 나라 사람이라구 할는지 속은 딴나라 사람이란 말이야! 제 머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댔자 무슨 일을 하겠니, 그것은 가마귀 떼와 같아서 아무 일도 치르지

못 한다. 때문에 남의 것을 배우는 것두 제 것을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게다…》

김 선생의 이야기 샘물은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이 없었습니다. 김 선생은 벌써 외가'집에 가서 토의를 하고 왔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조선으로 건너 가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원수님은 무척 기뻤습니다. 이 날부터 원수님은 길떠날 준비를 서둘렀던 것이며 오늘 이렇게 그립던 만경대를 찾아 온 것이였습니다.

5.

원수님이 만경대에 돌아 왔다는 소식은 잠간 사이에 마을에 쭉 퍼졌습니다.

원수님은 마을에 도착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마을 할아버지들을 찾아 인사를 드렸으며 삼촌 어머니는 우물'가에서 천리'길을 단신으로 걸어 온 원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원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 온 동무는 바루 할아버지네 곁 집에 있는 룡훈이였습니다.

《증손이 왔다지요.》 하며 그는 문을 버썩 열고 방으로 들어 왔습니다.

원수님은 그 애 얼굴을 곧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니 ? 나 룡훈이야.》

이 말을 들은 원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 룡훈이 네가 그렇게 몰라 보게 됐구나! 정말 무던히 컸는데.》

원수님은 룡훈이 손을 덥석 쥐였습니다.

그들이 남명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였습니다. 동무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 왔습니다. 원수님은 응화의 얼굴을 제일 먼저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수님보다 두 살 우였는데 얼굴 모습이 어릴적 모습과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창이의 얼굴도 어슴프레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갑게 손목들을 부여 잡았습니다.

원수님은 동무들을 만나니 7 년 전에 그들과 함께 재미 있게 놀던 기억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 때만 해도 벌써 옛날처럼 생각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때처럼 놀아 보고 싶었습니다.

《야. 우리 밖에 나가 노는 것이 어떠냐.》

하고 원수님이 말했습니다.

《응, 나가 놀자》

그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수님은 고향 마을을 바라 보고 또 바라 보아도 정다웠습니다. 고향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그리고 바위와 오솔'길까지도 모두가 반가왔습니다.

원수님이 환희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 보며 천천히 발'길을 옮기고 있을 때에 리 서분녀가 물을 길어 가지고 지나다가 원수님과 마주쳤습니다.

리 서분녀는 7 년 전에는 더벅머리였는데 지금은 제법 길다란 머리 꼬리에 붉은 댕기를 드렸습니다. 큰 물'동이를 이고 물'동이로 찌워 넘는 물을 한 손으로 스치는 솜씨가 아주 능난했습니다.

서분녀는 원수님을 보고 퍽 반가와하는 눈치였으나 아는 척하지 못 했습니다.

《서분녀두 학교에 다니냐.》

하고 원수님이 동무들에게 물었습니다.

《못 다녀 !》

《왜?》

《계집애라구 안 보내는 거지 뭐》

《녀자애라구 글을 배워서 나쁠 건 없지 않니?》

《흥, 녀자는 일이나 배워 가지구 시집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기 우리 학교에두 녀학생이야 몇 명 되는 줄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는 사이에 그들은 썰매 바위 앞에 이르렀습니다.

《너 바위에서 썰매 타던 생각나니 ?》

하고 룡훈이가 물었습니다.

《나지 않구 !》

원수님은 빙긋 웃으며 바위 앞에서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글쎄 저 바위에서 썰매를 탄다구 마구 미끄러져 내려 오댔으니 옷이 남아 났겠니.》

원수님의 말이였습니다. 원수님의 머리에는 7년 전의 일이 엇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글은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박 달, 박 금철 선생님들이 활동하던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기관지 《화전민》이라는 잡지 7호에 실렸던 글이다.)

…우리의 살'길은 어디 있는가!

나의 처지를 말하여 여러 동무들에게 그 진상을 소개하려 한다.

나는 돈 없고 밭 없는 빈한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항상 아버지 뒤를 따라 호미, 괭이와 낫, 도끼를 메고 농터에 나가 일하는 소년이다.

식구는 모두 일곱 사람인데 밭은 화전(부대 밭) 삼사일경 (서너 날알같이~손으로 일궈서 3~4일 일쿨 정도라 하는 말) 밖에 없다. 일상 아버지와 나는 검은 검대기와 싸우고 있는데 태양은 없는가 있는가를 구분치 않고 일하는 나의 등은 피부가 다 데 벗어지고 이마에서는 구슬 땀이 뚝뚝 떨어지고 힘없는 몸으로 괭이를 들어 놓는데 부지불식 간에 어디에선지 불을 끄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이 자식아, 뭘하니… 목 빠지게 소리치는 것을 못 들었니… 너도 대 일본 제국의 한 사람이겠지… 이 놈아 빨리 걸어라…》개놈들이 아버지와 나의 등을 밀며 되는 대로 두드리다가 바라 간다. 이 때에 나는 아버지 낯을 쳐다보며 비참히 섰다가 힘 없이 괭이를 흔들고 있었다.

이러는 동안에 해는 벌써 서산에 넘어 가고 마을 집집 굴뚝에서 연기가 불숙불숙 나는데 나는 고픈 배를 다시금 떠졸라 매고 아니 나가는 걸음으로 집 마당까지 오니 집안에서는 어린 동생들의 우는 소리가 난다. 가만히 서서 들으니 밥 투정을 하는 울음 소리다.

이 울음을 듣는 나의 뜨거운 가슴은 터질 지경이다. 어린 동생들은 강냉이 죽 더 달라고 발버둥 친다…

화전민 소년들아!

돈 있는 자식들은 삼층 루각에서 호의 호식하며 크다란 학교를 다니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며 자동차, 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화전민 소년들은 먹음에 주림과 배고픔의 고통을 받으면서 있는데도 《산림 보호구》 개들은 자기들의 세금과 부역에 순응하지 않으면 축출 명령을 하지 않는가…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에 있어서 과태금, 공이 조합비, 거출금, 호세, 농회비, 가옥세 〈이외에 많다〉를 불쌍한 농민들에게 매년 부과하고 시시 독촉 증수(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독촉하여 받아 간다는 뜻)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 빨리우는 우리가 아닌가?

화전민 소년들아 궐기하라!

각성하고 하루 바삐 공개적으로 강탈되였던 조국을 광복하자!

우리 생명 보호와 전 민족의 해방은 우리 손에 있으며 우리들의 전투에 있다. 소년 동무들아! 무궁화 강산에 진달래는 변치 않았는데 어찌 인간으로 마음이 변할가.

강도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하고 잃었던 조국을 도루 찾자, 날강도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놈들은 쥐와 같이 간사하게 은행, 금융 조합, 산업 조합, 척식 회사 등 일본 대재벌 (큰 자본가들이 모인 세력)들을 조선에 들어 오게 하여서 대착취 대 폭행을 가하여 로동자 농민의 고혈 (기름과 피땀)을 남김없이 살'점까지 뜯어 가지 않는가!

지금 서만 일대에서 인민 혁명군이 맹렬히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으며 일상 듣지 않는가…

우리도 잠자지 말고 일어 나서 과감한 반일 투쟁을 전개하자.

서만주에서 활동하는 동무들은 산림 속에서 새를 온돌로 삼고 잠조차 새우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잠을 자지 말고 일방으로는 정당한 정치 공작을 집행하며 각 당, 각 파를 망라하여 반일 투쟁에 행진하게 하며 또 일방으로 인민 혁명군에게 물질적 원조와 정신적 성원을 하여 강도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여야 한다.

(본문 괄호 안의 설명은 편집부에서 단 것임)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

지 경 수

나는 때때로 소년단원들의 자랑찬 노래소리를 들을 때면 일제와 지주놈에게 여눌려 살아 온 피눈물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된다.

내가 세상에 태여 난 곳은 동북 연길현 묘을거우라는 곳이다. 무엇 때문에 조선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태여 났는가? 내가 세상에 태여 나기 7 년 전인 1910 년에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일제놈들은 기름진 땅을 제 마음 대로 빼앗았고 곳곳에 공장, 광산, 철도를 차려 놓고 우리 나라의 은 금 보화를 모조리 빼앗아 갔다. 일제의 경찰놈들은 개떼처럼 싸다니며 마구 총칼을 휘둘러 조선 사람들을 꼼짝도 못 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조선 사람이면서 조선의 문화와 글을 배울 수 없었고, 조선 사람이면서 조선 말조차 할 수 없었다.

왜놈들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산림을 빼앗고, 집을 빼앗았다. 정당한 주장을 내 세워 바른 말을 했다간 당장 경찰에 끌려 가 고문을 당했다. 이 몸서리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밤'잠인들 편안히 잘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본놈의 눈을 피해 깊은 산'골로 들어 가 부대기를 파 먹으며 살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산림 간수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다시 살'길을 찾아 동북 땅을 향하여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넜다. 이 사람들 속에 쪽바가지 하나를 동에 지고 함북 회령을 떠나 동북 연길현으로 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끼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 동북 땅을 빼앗은 일제는 여기서도 주인 행세를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있는 곳 그 어디를 가나 가난과 주림은 매한가지였다.

동북 땅은 넓고 좋지만 여기에도 거저 부칠 땅 뙈기란 한 뙈기도 없었다.

아버지는 겨우 지주의 땅을 빌어 해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일제의 공출과 지주놈에게 소작료로 빼앗기고 또 여러 가지 세금까지 물고 나면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여덟 살 때였다. 어머니는 영양 부족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약 한 첩 써 보지 못 하고 돌아 가시고 아버지는 어디로인가 《돈'벌이》를 떠났다. 의지할 곳 없이 된 나는 왕청현 고모네 집에 가 있다가 겨우 열 한 살이 잡혀 송 만복이라는 지주네 머슴으로 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 지주놈은 자기 땅 10 정보를 소작 주고 3 정보나 되는 땅을 머슴들을 두고 부치고 있었다. 창고들에는 언제나 오곡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놈은 소만해도 열 다섯 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빌려 주고는 가을에 가서 황소는 한 마리에 곡식 두 섬, 암소는 한 섬씩 받아 들이였다.

이 집의 머슴으로 들어 간 나는 지주집에 있는 소 세 마리와 말 두 필을 길러야 했다. 그러자면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긷고 여물을 끓이고 마구'간을 친다.

이 곳은 논'고장이여서 1 키로나 되는 먼 곳에 가야 물을 길어 올 수 있었다.

다섯 번 여섯 번씩 말먹이 물을 길어 오느라면 마지막 번에는 막 쓰러질 지경이였다. 배는 또 얼마나 고팠던지…

마지막으로 마구'간에서 마소를 내다 청소할 때에야 기름진 배를 슬슬 만지며 거만한 지주놈이 나온다. 지주놈은 말털을 곱게 못 빗었다느니 소 잔등을 더 쓸어 주라느니하며 온갖 잔소리를 다 했다. 나는 지주집 식구들이 다 먹은 다음에야 아무렇게나 주는 찬밥으로 아침 요기를 했다. 이 때면 늘 지주집 개 6 마리가 이밥에 고기'국을 먹는다. (나는 왜 개보다도 못 한 천대를 받는가, 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하며 밭으로 갈 때 지주집 아이들은 까불거리며 학교에 가고 있었다. 그들의 뒤'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당장 호미'자루를 내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그 때는 그것이 부질 없는 생각이였다.

나는 열 네 살 때부터 보탑을 잡고 밭갈이를 했다. 열서너 살 짜리가 힘을 쓰면 얼마나 쓰겠는가, 이랑을 바꿀 때 힘이 모자라 파종한 데를 빗 갈아서 지주놈에게 얻어 맞은 것이 몇 번인지 모른다. 한 번은 보리밭 후치질을 하다가 콩씨 다라치를 쏟혀 머리에 멍이가 지게 매를 맞은 일도 있었다. 이 때 마침 지주놈을 따라 와 밭머리에서 서성거리던 일본 순사놈이 이 광경을 보고 더러운 이'발을 드러내 놓으며 키득거리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놈은 지주놈더러 빨리 들어가 한 잔 마시자고 따라 다니는 놈이였던 것이다. 일제와 지주놈은 한패였던 것이다.

겨울에도 나는 고된 일을 해야 했다.

한 번은 내가 달구지에 발구를 싣고 30 리'길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 나무를 잔뜩 싣고 가파로운 산'길을 내리다가 그만 소와 함께 발구를 굴렸다. 발구가 마사졌다. 할 수 없이 한 대씩 메여 내려다 달구지에 실었다. 그러느라니 날은 벌써 어두워졌다. 허기진 배를 붙안고 겨우 돌아 온 나는 지주놈에게 사실 대로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지주놈은

《소가 상하지 않았어, 엉? 이 놈, 저 피를 봐라. 오늘 저녁은 굶어.》 하며 살진 볼을 부들부들 떨며 으르렁댔다. 지주놈은 나무 뿌리에 소 잔등이 좀 긁힌 것은 가슴 아파하면서도 사람의 얼굴과 손이

이 말을 기억합시다

김 일성 장군님!

우리는 아동단원답게 비밀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용감하게 원쑤와 싸웠습니다.

동무들! 이 원쑤를 갚아 달라.

백배 천배로 복수해 달라!

우리는 아동단원답게 싸우고 아동단원답게 죽는다.

※ 이 말은 피를 흘리면서도, 죽으면서도 원쑤에게 굴하지 않고 끝끝내 비밀을 지킨 혁명에 충직한 나어린 아동단원 강 룡남의 말입니다.

온통 가시에 찔려 피 흐르는 것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이였다.

나는 울컥 치미는 분을 겨우 참았다.

이 날 밤 나는 저녁 밥도 못 먹고 마소여물을 끓여 주고 자리에 누웠다. 온 몸이 쑤시는듯 아프고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팠다. 초저녁부터 드러누운 지주집 식구들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왔지만 나는 잠 들지 못 하였다.

(언제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단잠을 자 볼가? 학교에 다니는 이 집 아이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런데 나는 왜 마소처럼 일하지만 저녁밥도 못 먹고 자야 하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기 때문일가?) 하고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사실 부모가 다 있는 집 아이들도 나보다 나은 것은 조금도 없었다.

나는 후에야 그것이 왜놈과 지주놈들 때문임을 알게 되였다.

한때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이 밥 한 끼를 해 먹어도 벌금을 내야 했다. 혹 하늘에 별따기로 입쌀을 얻어 로인들에게 대접하려면 문을 걸어 매고 몰래 숨어 먹어야 했다. 일제가 박아 넣은 특무놈들에게 걸리면 당장 고자질하여 잡아가는 것이다. (왜놈들은 그 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는 절약한다고 하면서 조선 사람이나 중국 사람에게는 이밥도 못 먹게 했던 것이다.)

나라 없는 사람들의 처지는 바로 이러하였다. 그 후 나는 우리 마을에 조직된 소년회에 들었다.

소년회원들은 공청원 형님들의 지도를 받아 삐라 공작을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 놈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이 그 내용이였다.

소년회에서 자란 나는 1936 년에 영광스럽게도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에 입대하게 되였다.

김 일성 원수님이 주신 총을 잡은 나의 가슴은 원쑤에 대한 증오로 불탔다. (하루 속히 왜놈을 처부시고 우리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자. 자라나는 조선의 모든 아이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자.) 원쑤를 무찔러 산'발을 뛰여 넘으면서도, 며칠씩 계속하여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나의 가슴은 언제나 이 한 생각으로 고동쳤다.

물론 이것은 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빨찌산 투사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였던 것이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나라 없는 쓰라림 속에서 피눈물 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아버지, 어머니들의 지난 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을 이룩하기 위해 피 흘려 싸운 항일 투사들의 뜻을 이어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 조국을 더욱 빛내며 지키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

아직 우리 조국 절반 땅에는 미제가 둥지를 틀고 있고 그 밑에서 동무들과 같은 어린 소년들이 비참히 죽어 가고 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배 고파 울며 거리를 헤매는 남녘 땅 동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제 원쑤놈들을 몰아 내고 남녘 땅 동무들과 행복을 함께 누릴 그 날을 위해 더욱 힘 있게 배우며 준비하자!

★(이것을 아십니까?)★

요나 방석을 깔면 왜 편안할가요?

우리들은 물리에서 같은 힘이라도 그 힘이 물체에 닿는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은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요를 깔고 눕거나 방석을 깔고 앉으면 편안한 것은 압력에 관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른들의 몸 표면적은 보통 약 20,000 Cm^2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푹신한 요 우에 누으면 몸 표면적의 $\frac{1}{4}$ 즉 5,000 Cm^2이 요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몸의 매 Cm^2 에는 겨우 12g 중 정도의 압력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중을 60 Kg로 계산) 그러나 만약 요를 깔고 눕지 않으면 몸 표면적은 요를 깔 때보다 수백 Cm^2이나 적게 닿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울룩불룩하게 생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몸의 매 Cm^2에는 거의 500 g 중의 압력으로 내려 누르게 됩니다.

때문에 요나 방석을 깔면 불편하지 않고 괴로운 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민청호》 전기로 앞에서

우리 분단 동무들은 가끔 공장과 건설장을 찾아 가는 것을 즐겨 합니다. 며칠 전에는 분단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가까이에 있는 강선 제강소를 찾아 갔습니다.

웡웡—전기로 돌아 가는 소리, 아름드리 강괴, 압연기에서 뽑아져 나오는 굵고 가는 가지각색 철근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황홀하게 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강철 직장에 들어 서자 전기로에서 나는 아크 소리와 부단히 오가는 천정 기중기 소리로 작업장은 마치 전투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들이 《민청호》 전기로 앞에 다달았을 때입니다.

《오, 꼬마 동무들이 또 왔구만…》

탑삔봉을 쥔 형님들은 한 손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시며 우리를 반가히 맞아 주었습니다.

형님들과는 퍽 그나 먼 곳에 서 있었지만 로에서 뿜는 열로 하여 우리들의 온 몸은 금시에 불도가니 속에 들어 온 것 같았습니다.

순간(형님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기에 자동차, 뜨락또르가 나오고, 새 철도가 뻗어 나가고,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일어 서서 우리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구 우리의 생활이 향상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형님, 우리들은 민청 5 차 대회를 앞두고 〈민청호〉 형님들의 투쟁 이야기를 들으려 찾아 왔습니다.》

우리들이 청년 천리마 작업반장 김 부길 형님께 말씀 드리자 형님은

《그래? 교대 시간이 다 됐어. 저기 나가 조금만 기다리라우.》 하고 커다랗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였습니다.

우리들이 밖에 나와 잠간 땀을 드리우고 있느라니

《자 저리로들 가자우.》 하고 작업반장 형님이 나오시며 우리를 한 그루의 백양나무 밑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모두들 앉지. 〈민청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백양나무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해…》

이렇게 말머리를 뗀 형님은 우리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며 정전된 지 한 주일만인 1953년 8월 3일, 김 일성 원수님께서 이 공장에 오시여 손수 파철'더미와 잡초를 헤치시며 이 백양나무 밑에서 로동자 아저씨들과 제강소 복구 방도에 대해 의논하시고 가르쳐 주시던 말씀이며 그 후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한 사람처럼 일떠나 예정한 날'자보다 절반이나 앞당겨 불과 40 일만에 《민청호》 전기로를 복구하고 정전 후 공화국에서 첫 강철의 폭포를 쏟던 감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민청로 형님들이 바로 이러한 민청로에서 일하는 영예를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박차고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해 온 이야기를 쭉 하시였지요.

《박 길송 청년돌격대》 형님들 처럼

민청 제 5 차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민청원 형님들은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 놓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65 m나 되는 줄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며 보통 5 년 이상은 걸려야 할 288.7 m의 수직갱 공사를 단 1 년 8 개월 동안에 끝낸 만년 광산의 박 길송 청년돌격대원 형님들의 놀라운 투쟁 모습은 나를 무한히 감동시켰습니다.

나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항일 빨찌산들이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왜놈들과 긴 세월을 두고 갖은 곤난을 물리치며 싸운 그런 고귀한 혁명 정신이 형님들의 가슴에 맥박 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형님들이 이룩한 가지가지의 자랑찬 성과들을 더듬어 볼 때 민청의 교대자인 소년단원으로서 한 일이 너무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소년단원의 기본 임무인 학습을 어떻게 해 왔는가를 생각해 봐도 부족점이 많습니다.

비록 최우등은 하였지만 자만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교과서에 나온 지식을 더 폭 넓게 알지 못 하고 있으니까 말이예요. 지난날 흥미 있는 과목만 치우쳐 공부하거나 교과서만 외우는 그런 학습을 한 것이예요.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의 지식이라도 더 똑똑하게 알기 위해 힘 쓰렵니다. 실험과 실습은 물론 학습에 필요한 많은 책들을 읽어 더욱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기에 힘 쓰겠어요. 특히 이 번 방학 기간에 항일 빨찌산 회상기 와 어린 혁명 전사 들을 비롯하여 출판물에 나오는 소년단원들의 학습 경험들과 여러 가지 문학 서적, 과학 서적들을 더 많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민청 형님들의 다섯번 째 대회를 앞두고 아름다운 일을 더 많이 하여 소년단원의 의무를 훌륭히 지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박 길송 청년 돌격대원 형님들처럼 그런 훌륭한 민청원이 되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평남 문덕군 만흥 중학교
6 분단 강 옥희

강철 12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긴장된 로력 투쟁이 진행되던 지난 해 5월에 있은 일이랍니다.

민청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급히 대보수를 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되였답니다. 이 때 만약 로를 식혀 가지고 보수를 시작한다면 옹근 닷새'동안(120 시간) 생산이 멎어야 했는데 강철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에서 1 시간이 새로운 것을 잘 아는 형님들은 가마니를 물에 적셔 쓰고 900 도의 불가마 속으로 뛰여 들어 끝내 34 시간만에 해 내고야 말았답니다. 당과 수령님께 바치는 형님들의 불타는 충성심은 마침내 수 백도의 뜨거운 열도 이겨 냈던 것입니다.

지금 형님들은 공화국 창건 15 주년과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힘차게 일하고 있답니다. 민청 제 5 차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날 벌써 민청로에서는 그날 계획을 156%로 넘쳐 했습니다.

《이 번 대회는 지난 4 차 대회로부터 7 년 동안 당 앞에 충성을 다한 민청의 자랑찬 성과를 총화하고 앞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우리 민청이 해야 할 일을 의논하는 대회이지.》라고 하시며 지난날에도 민청이 당과 수령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해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힘써 왔지만 앞으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더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뜻 깊은 대회를 앞두고 지금 형님들은 대회 전으로 국가 계획을 앞당겨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제강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창의 고안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동무들은 민청 5 차 대회를 어떻게 맞고 있소 응?》

형님은 말머리를 바꾸어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렵니다. 우리 분단에서는 이렇게 결정하고 5 차 대회 전으로 분단을 꼭 2 중 모범 분단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소년단원들의 첫째 가는 임무는 학습이니까.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가 될 수 없거든, 그렇지?》하고 형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처음 제강소에 왔을 때만 해도 난 강철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기계를 창의 고안해 보구 싶었지만 나에게는 물리, 화학, 수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단 말야, 그래 그것은 마음 뿐이였지. 나는 리 승만 통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 했거든. 그러나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 일하면서 배워 지금은 공산대학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니 많은 것이 생각되거든.》하고 형님은 자못 만족하신듯 껄껄 웃으시며 제강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많은 창의 고안을 하신 데 대해 말씀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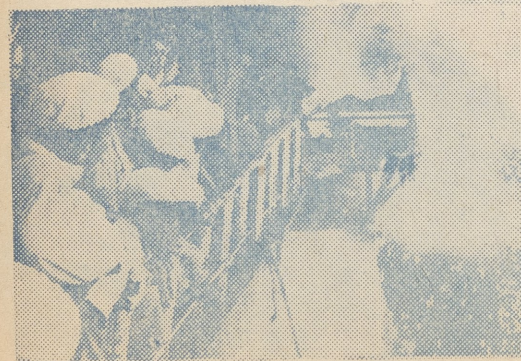
《장차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자면 공부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원쑤를 미워하고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남쪽 땅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 자본가, 지주놈들이 아직 남아서 우리의 이 행복을 빼앗으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쑤들이 덤벼 들면 모주리 저 불가마 속에 처 넣어야 하거든.》

불끈 쥔 손을 휘두르며 말씀하시는 형님의 두 눈에서는 금시 불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끝으로 장차 훌륭한 민청원이 되고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단원들처럼 조직에서 단련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형님은 대회 전으로 금년 계획을 완수하고 우리더러는 민청 5 차 대회 전으로 꼭 《2 중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니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형님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다짐하면서 소년단 행진곡 드높이 학교로 돌아 왔습니다.

평남 강선 중학교 단·제 13 분단
위원장 정 명남

전기로 앞에서

훌륭한 민청원이 되렵니다

나는 초중 1 학년 때부터 민청원이 될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번에 민청 5 차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민청원이 되고 싶은 마음을 더욱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의 수첩을 꺼내여 한장 한장 펼치였습니다.

《나는 해방된 조선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는 귀중치 않다.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19 세의 젊은 민청원의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리 수복 영웅 형님! 나는 나의 수첩에 적힌 형님의 이 귀중한 말을 읽을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나도 앞으로 리 수복 형님처럼 그렇게 용감하고 훌륭한 민청원이 될 수 있을가? 그 무엇이 가장 어려운 순간 리 수복 형님의 가슴을 그렇게 끓어 번지게 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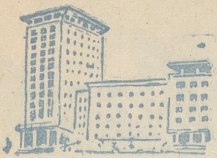
나는 리 수복 형님의 그 훌륭한 마음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형님이 어려서부터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단원의 모범을 따라 공부도 잘 하고 소년단 조직 생활에도 열성껏 참가했기 때문이고, 고향과 동무와 집단을 사랑하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즈음은 둘째 형님한테서 《민청원의 의무 해설》이란 책을 빌려 한 제목 한 제목 읽어 나가면서 민청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청 제 5 차 대회를 앞두고 단 위원장인 나에겐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우리 학교 단에 《2 중 모범 분단》이 없는 것이 제일 부끄럽습니다.

나는 단 위원들과 분단 위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한 개 이상의 《2 중 모범 분단》을 쟁취하기 위해 힘 쓰겠습니다.

평양시 동대원 구역 동신 중학교
단 위원장 허 철

두 동무의 편지

평안남도 순안군 천동 중학교 단 박 미자 동무는 일본 도꾜 조선 중고급 학교에 다니는 김 수자 동무와 항상 서로 편지를 주고 받고 있다. 아래에 이들 두 동무의 편지를 그 대로 소개한다.

수자 동무에게

수자 동무! 동무의 편지는 반가이 받았습니다. 수자 동무의 편지를 받고 나는 너무도 기뻐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였어요. 그 날은 온 종일 수자 동무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어요.

나는 수자 동무의 편지를 받을 적마다 수자 동무도 하루 바삐 사회주의 조국에 돌아 와 함께 공부하며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지지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 수자 동무는 다는 모를 거예요.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훌륭한 학교를 지어 주시고 철을 따라 교복까지 내 주시며 교과서와 학용품 그 무엇이든지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마련해 준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조국의 명승지마다에 설치된 야영소들에서 우리는 누구나 마음껏 여름을 즐기며 소년 궁전, 아동 공원에서 즐겁게 뛰놀며 씩씩하게 자랍니다. 우리 분단 동무들은 지난 해 8월에도 야영소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분단이 《모범 분단》의 영예를 지닌 후 첫 려행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에서 귀국한 김 영옥 동무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야영 생활을 해 보는 영옥이는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답니다. 그는 일본에서 같으면 이런 야영 생활이란 꿈에도 해 볼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야영소에서 돌아 온 영옥이는 문학, 력사, 지리 과목을 따라 잡아 벌써 최우등생이 되였습니다.

수자 동무! 나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미제의 발굽 밑에서 신음하는 남반부의 어린 동무들을 생각합니다. 바다 건너 수만리 떨어져 있는 수자 동무와도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는데 무엇 때문에 한 나라 한 땅에 사는 남반부의 우리 동무들과는 편지조차 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것은 미제 원쑤놈들과 그의 앞잡이 박 정희 군사 깡패놈들 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우리 조국 남녘 땅에서 원쑤들을 몰아 내고 남반부 동무들도 우리들과 함께 공부할 날이 오고야 말리라고 굳게 믿어요. 그 날까지 최우등의 성적으로 공부도 더 잘 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합시다.

회답을 기다리며…

평남도 순안군 천동 중학교
제 2 학년 박 미자

그리운 미자에게

미자 동무! 그리운 조국 동무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가득 실은 동무의 편지를 받았어요. 나는 조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공화국의 소년으로 태여난 자랑과 기쁨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 오른답니다.

오늘도 조국의 동무들은 훌륭한 학교와 훌륭한 야영소, 아동 공원, 극장, 영화관들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즐기겠지요. 생각만 해도 막 조국으로 달려 가고 싶어져요.

어서 빨리 달려 가서 미자 동무와 함께 목청껏 《김 일성 장군의 노래》도 부르고, 원수님의 고향 만경대와 평양의 소년 궁전, 동해 바다'가 속후와 원산 송도원의 야영소로 달려 가고 싶어집니다.

미자 동무! 일본에 있는 우리 조선 소년단원들은 몸은 비록 조국에서 수 천리 떨어진 먼 곳에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조국 동무들과 함께 있답니다.

조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은 학교도 지어 주시고 학비도 보내 주신답니다.

원수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말로 글도 배우며 소년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동무! 우리 학급은 지난 10월에 《모범 학급》이 되였어요.

하루 바삐 조국의 품에 안기고 싶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미자 동무도 이런 말을 알겠지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 말이예요. 이것은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 하다는 뜻이지요. 《소년 신문》, 《소년단》 잡지에서 사회주의 건설 모습이며 《모범 분단》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막 뛰여 가 보고 싶은 마음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 뿐 아니라 일본에 남아 있는 모든 조선 사람들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일 동포들은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왕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하여 마음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겠어요.

우리 소년단원들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투쟁을 보고만 있지 않아요.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 나섰지요. 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예요. 하루 속히 조국의 품에 안겨 미자 동무와 함께 공부도 하고 《교마 7 개년 계획》 활동에도 참가하여 사회주의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면서 오늘은 이만합니다. 미자 동무의 몸 건강을 바랍니다. 미자 동무! 계속 서로 편지를 나눕시다.

일본 도꾜 조선 중고급 학교
중 2. 2 김 수자 씀

① 일본에서 귀국하여 평양시 선교 중학교 인민반 1 학년에 입학한 김 진주 동무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배우고 있다.

② 오늘도 마 영혜 동무는 기악 합주 련습에 여념이 없다.

③ 귀국하여 평양 창전 중학교에 다니는 김 복해 동무는 벌써 가야금을 곧 잘 탄다.

④ 일본에서 돌아 와 평양시 동흥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박 창수 동무네 집에서는 이처럼 항상 웃음꽃이 피고 있다.

참된 소년단원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강원도 고성 중학교 단 3 분단 (중 2 년) 분단 위원장 윤 석열 동무에 대한 이야기—

본사 기자 연 일덕

석열이가 입단한 날 앞가슴에 나붓기는 붉은 넥타이와 반짝이는 소년단 휘장을 찬찬히 더듬어 보시며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쁨어린 어머니의 낯이 책상에 놓인 석열이 아버지 사진에 가 멎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낯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하는 생각이 나신 것이지요.

《석열아! 이젠 어엿한 소년단원이 아니냐,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한 자의 글을 쓸 때나, 한 줄의 글을 읽을 때나 언제나…》

어머니의 말씀은 어린 석열의 가슴에 불씨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다! 나의 아버지를 빼앗은 놈, 바로 미국놈들을 쳐부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석열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였습니다.

그 후 석열이는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 마침내 분단 위원장이 되였습니다.

동무에 대한 사랑

1962년 4월,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한 후부터 분단 사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학해 온 광운이만은 집단이 하는 모든 일에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광운이 때문에 《모범 분단》이 못 되겠다고 야단이였습니다.

다람쥐잡이에 정신이 팔려 지각을 하고 공부 시간에 새소리를 내서 주의를 혼란시키고도 부끄러워 할 대신 키득거리는 광운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광운이를 고쳐 줄가?)

이렇게 생각한 석열이는 광운이와 친하려고 애썼습니다. 석열이는 광운이를 조용히 만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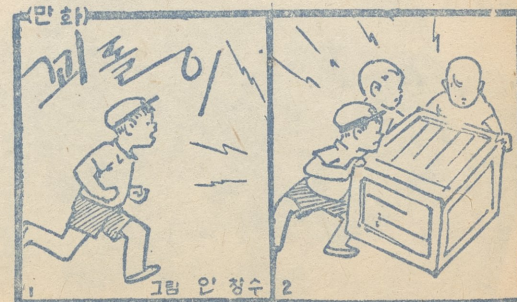
《광운이! 난 체육이 재미 있어, 넌 무엇이 제일이니 응?》 그 때마다 광운이는 《난 아무 것도 없어.》 하며 도리질 하는 것이였습니다.

하루는 광운이가 《분단 토론회》에서 빵소니를 쳤습니다.

석열이는 영철이와 함께 광운이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광운이는 토끼풀을 뜯으러 가고 없었습니다.

광운이는 늘 학교에서 돌아 와서는 토끼풀을 해 온다는 것입니다.

헛간에는 토끼와 염소가 복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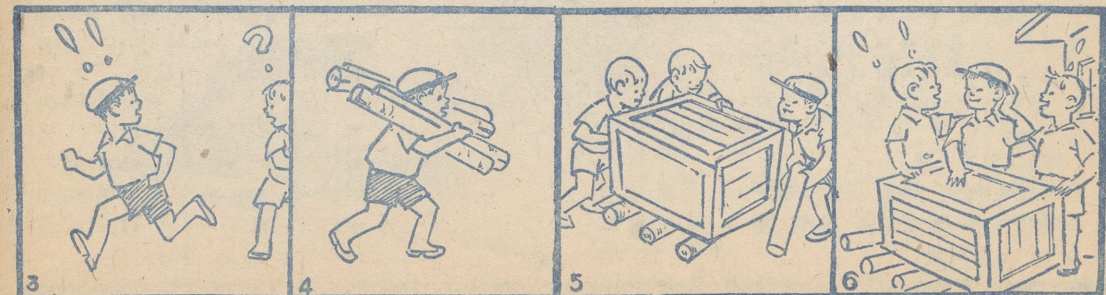
(광운이가 좋아하는 것이 동물이구나. 그리구 집'일을 돕느라구…) 이렇게 생각한 석열이는 광운이의 기특한 일솜씨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안 일이지만 광운이 어머니는 전쟁 시기 원쑤놈들에게 고문을 당하여 늘 앓아 눕게 되여 집'일을 많이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구 제가 좋아하는 짐승도 길렀습니다. 그래서 광운이는 하루 이틀 학교에 빠지면서부터 공부에 대한 취미를 점점 잃게 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안 석열이는 집단이 그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단에서는 2 반과 3 반 동무들이 광운이의 집'일을 돕게 했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제 일처럼 광운이를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구 석열이는 광운이가 힘겨워 하는 대수 공부를 맡아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광운이와 함께 늘 금강산에 올라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해금강과 푸른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재미 있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우린 참 행복해, 아름다운 고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들이 피로써 지킨 고향, 그리구 고성의 소년 빨찌산들이 굳세게 지킨 고향, 이 고향의 참된 주인이 돼야 하지 않어!…》 석열이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광운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광운이의 눈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석열아! 너무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나두 이젠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켜 싸운 고향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 힘껏 배워 나가겠어, 이것이 원쑤를 갚는 마음이라구 생각해…》

원쑤와 싸워 이긴 마음

1962년 8월 어느 날 있은 이야기입니다. 그 날도 석열이는 동무들보다 좀 늦게 학교에서 돌아 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였던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며 세찬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물도 《쏴—쏴—》 소리를 내며 기슭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은 비끄러맨 바'줄을 당기며 물 우에 둥둥 뜹니다.

(배들이 일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어 바'줄을 하나 하나 유심히 살피며 걸어 가던 그가 맨 마지막 배'전에 다달았을 때입니다. 《엄마! 엄마!》 어디선가 어린이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두 어린애(5~6 세)가 배에서 놀다가 미처 나오지 못 하고 물 속에 빠진 것입니다.

석열이는 울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 갔습니다. 《앗?!》 사위를 바라 보며 《사람 살려요—》 하고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석열이의 앞은 아찔해졌습니다. 순간 그의 머리에는 얼음'구멍에 뛰여 들어 일곱 생명을 구원한 김 정순 영웅의 모습이 피뜩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 생명을 살려야 한다.) 석열이는 이를 악물고 사나운 바다'물을 맞받아 나아갔습니다.

여느 때는 수영 소조에서 헤염을 잘 한다던 축인데 사나운 파도물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두 아이의 옷자락을 량 손에 꽉 틀어 쥐였습니다. 그런데 사납게 밀려 드는 파도는 그들을 허궁 들었다 놓군 하였습니다. 석열이는 많은 물을 먹었습니다. 막 숨이 차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열네 살의 어린 몸으로 두 명의 어린이를 끼고 파도와 싸운다는 것은 힘에 겨운 일이였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애들을 구원해

야 한다. 요만한 곤난 앞에서 이겨 내지 못 한다면 적들 앞에 투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이렇게 생각한 석열이는 끝내 두 아이를 구원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럿을 위해 바친 지성

석열이가 밤을 새워 가며 많은 책을 읽는 데는 자기를 위한 것만은 아니였습니다. 석열이의 학습실에는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어린 혁명 전사들》, 《어린 애국자 서 강렴》 등 300여 권의 도서들이 주룬히 놓여 있습니다. 석열이는 책을 읽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주인공들의 모범을 따로 기록했다가 분단 동무들에게 늘 이야기해 줍니다.

석열이가 애써 그린 그림극도 분단 동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군 합니다. 석열이는 신 상환 동무의 어머니가 열 네 살 때 지주'집 머슴'군으로 고생하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림극을 돌리는 날, 나어린 몸에 남들이 다 잠든 고요한 달'밤에 혼자 강'가에서 지주놈의 땀 밴 옷을 빨다가 지쳐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을 때 분단 동무들은 모두 손을 불끈불끈 쥐였습니다. 석열이가 분단 동무들을 위해 바친 지성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석열이는 자기가 지은 작문 《아름다운 내 고향》을 분단 동무들에게 들려 주어 모두 고향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다시는 더러운 원쑤들이 기여 들지 못 하게 힘 쓰도록 고무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석열이는 이것이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척 기뻐하군 하였습니다.

석열이가 《조선 소년의 영예상》 메달을 가슴에 번쩍이며 돌아 간 날, 학교 선생님들과 소년단원들, 온 마을 사람들은 환희에 넘쳐 그를 반가히 맞아 주었습니다. 석열이의 어머니는 김 일성 원수님의 표창장과 메달을 만져 보며 감개무량해 말씀하셨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이 은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

석열이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충직한 나어린 전사로, 집단의 앞장에서 더욱 열심히 배우며 준비해 나가리라고 굳게굳게 다짐했습니다.

☆ 이것을 아십니까? ☆

땅 우가 여름이면 땅 속도 여름일가요?

동무들은 땅 우가 여름이면 땅 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땅 우가 여름이면 땅 속도 여름일가요?

그러나 땅 속 계절은 땅 우 계절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땅 우는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이 되였지만 땅 속으로 3 m만 들어 가면 거기는 아직 가을철 온도이며 땅 우가 무더운 여름이라면 땅 속의 온도는 땅 우에서라면 겨우 추운 겨울이 약간 지났을 때의 온도랍니다.

왜 그럴가요?

그것은 땅은 열을 전도하는 성질이 다른 물질보다 아주 적은 데 있습니다.

때문에 땅 우의 온도 변화가 땅 속에까지 달하려면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데 의하면 보통 3 m의 땅 속에서는 제일 더운 시기는 땅 우보다 약 두 달 정도 늦어서야 오고 가장 추운 시기는 약 석 달 정도 늦어서야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깊이에까지 달하면 일년 중 온도의 변화가 전혀 없고 수백년 동안 같은 온도에 있는 것입니다.

례를 들면 파리 천문대의 지하 28 m의 굴에는 150여 년 전에 학자 《라부아제》가 설치해 놓은 온도계가 있는데 지금도 변함 없이 섭씨 11.7 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진 그림자 (5회)

박 응호

5. 우정

천룡이는 다음 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명길이는 어머니가 또 그를 학교에 내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경팔이와 문일이는 이 날은 종일 찌프듯한 얼굴을 하고 다녔다. 지난 밤의 일때문이라고 명길이는 짐작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그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명길이는 자기 옆 빈 자리에 눈이 갈 때마다 왜 그런지 자꾸만 어제 밤에 한 천룡이의 말이 되살아 나군 하였다.

어머니의 신변을 걱정해서 한 말이기는 하였으나 어제 밤 불 사건까지 겪고 보니 어쩐지 자꾸만 마음이 캥겼다. 무엇때문에 그런 이야길 꺼냈을가? 그것도 같이 경비를 서면서… 혹시 무슨 이야길 누구한테서 들은 것이나 아닐가?

이런 생각과 함께 가끔 시름없는 한숨을 짓던 일이며 말 한 마디 속 시원히 하지 않고 침울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천룡이의 모습이 눈에 얼른거렸다. 그러며 착하고 부지런하고 짬 한 번 한 적 없는 천룡이가 자꾸만 가엾게만 생각되였다. 더우기 이런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원래 말이 적은 데다 한 번 시킨 일이면 어른 못지 않게 걸사게 해치우는 그러면서도 경팔이처럼 뽐내거나 자랑할 줄도 모르는 그의 성미이다.

학교를 새로 지을 때 일이였다. 그 때 아이들은 건설 로동자들을 도와 정거장에서 벽돌을 날랐다. 십 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벽돌 다섯 장도 아이들에게는 좀 힘에 겨웠다. 그러나 천룡이는 열 다섯 장을 지게에 지고 날랐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지쳐서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빼앗다 싶이 하여 자기 지게에 옮겨 놓았다. 그리하여 이 날 천룡이는 칭찬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조금도 뽐내지 않았고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겸적해하였다.

명길이는 이런 천룡이가 마음에 들었고 그럴수록 그를 도와 주고 싶은 생각이 더욱 커 갔다.

그런데 천룡이는 왜 그런지 다른 아이

물 갈지 않게 항상 침울해 다니며 말도 터놓고 하지 못 하는 것이 명길에게는 못내 유감스러웠다.

명길이는 해질 무렵에야 학교에서 나왔다. 며칠 후에 있을 계급 교양과 관련한 이야기 모임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길로 천룡이를 찾아 갔다. 날씨는 여전히 찌프린 채였고 이따금 비가 오다가는 멎군 하였다. 시컴한 구름 한떼가 밀려 오는 것으로 보아 또 큰 비가 올상 싶었다.

명길이는 물 고인 데를 옮겨 짚으며 걸음을 재우쳤다. 그가 천룡이네 집에 갔을 때 그는 어둑컴컴한 방에서 공공 앓고 있었다. 그는 가끔 앓음 소리를 실내키처럼 내군 하였다.

천룡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명길이가 마당에 들어 서는 것을 보자 어머니는 대뜸 반가운 기색을 띄우며 부엌에서 마주 나왔다.

《우리 천룡인 앓아서 학교엘 못 나갔구나!》

명길이가 놀라며 급히 방안에 들어 갔다. 어머니도 뒤따라 들어 왔다.

천룡이의 이마는 불'덩어리 같았다. 그는 신열이 높아 명길이가 찾아 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열이 대단한데요. 왜 의사한테 보이지 않나요?》

《감긴가부다. 어제밤 비를 맞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됐구나! 뭐 쉬 낫겠지.》

어머니는 천룡이를 한눈으로 살피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그래요?》

명길이는 미안스런 생각이 들었다. 자기 때문에 천룡이가 앓아 누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어딜 비 오는 날 싸다니는지 한 번 혼이 나 봐야지.》

어머니는 못마땅한 눈치로 앓는 천룡이를 또 흘끔 바라 보았다.

명길이는 천룡이가 비밀을 지켰다는 것을 인차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밤에 망보는 것을 절대 비밀로 붙였던 것이다.

어머니가 불을 켰다. 방안은 일시에 환해지며 눈이 시였다.

천룡이의 열에 뜬 얼굴에는 방울 같은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다. 입술은 말라 보풀이 일었고 이따금 파르르 떨리기도 했다.

명길이는 머리맡의 수건을 들어 조심조심 천룡의 얼굴을 훔쳐 주었다.

천룡이가 무언가 뜬 소리를 질렀다. 처음엔 그것이 무슨 말일지 딱히는 알 수 없었다.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는 가끔 《나를…나를…용서…》 하고 말하군 하였다.

어머니는 그의 입에서 뜬 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를 대구 흔들며 《천룡아! 천룡아!》 하고 불러댔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열이 높아 그런 걸요…》

명길이는 어머니가 너무도 매몰스러워 말투가 얹잖게 나왔다.

《어머니! 천룡일 병원에 입원시킵시다.》

명길이가 서둘어 일어 서며 단호히 말하였다.

어머니는 쓰다 달단 말 없이 천룡이의 얼굴만 지켜 보고 있었다.

명길이는 경팔이, 문일이들에게 알리려고 천룡이네 집을 뛰쳐 나왔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 눈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는 진창'길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마구 뛰여 갔다.

그가 부락으로 잡아 들었을 때 저만치에서 두 아이가 뛰여 왔다. 경팔이와 문일이였다.

《야! 잘 만났다.》

경팔이의 목소리였다.

《널 찾아 가던 길이야!》

문일이가 헉헉 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명길이는 자기 대로 급해 나서

《말할 새 없어! 빨리 가자! 천룡이가 위독해!》

하고 두 아이를 몰아 세웠다.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어!》

경팔이가 한 옆으로 물러 서며 성급하게 말했다.

《수상한 놈이 나타났어!》

문일이도 급해 나서 소리쳤다.

그제서야 명길이는 좀 흥분을 가라앉히며 두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경팔이가 거품을 물며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초저녁에 둘이는 명길이를 찾아 갔다. 이 날도 망을 보러 나가기로 되여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명길이네 집 가까이 갔을 때 웬 낯선 사람이 명길이네 집을 흘끔흘끔 들여다 보며 길'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어둡기 시작한 때여서 얼굴은 똑똑히 보지 못 했으나 구레나룻이 시컴한 키 큰 사람이였다. 그는 검은 캪을 썼는데 어깨가 너부죽하고 힘꼴이나 쓰는 든든한 몸'집의 사나이였다.

아무리 보아도 부락 사람 같지는 않았다.

문일의 머리가 비상히 움직이였다.

이 놈이 혹시 명길이네를 노리는 그 놈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번개쳤다. 문일이는 좀 무서웠지만 아래'배에 꾹 힘을 주고 수상한 사나이를 불러 세웠다.

《아저씬 누구예요?》

문일이가 야무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수상한 사나이가 뚝 발'걸음을 멈추며 두 아이게로 돌아 섰다.

《지나 가던 사람이지.》

하고 웅굴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꾸했다.

《야, 이 놈이 꽤 대담한 놈이로구나. 조금도 덤비지 않네, 어디 배겨 내나 보자!》

하고 문일이는 슬금슬금 그 사나이게로 다가 갔다. 그 사나이의 손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다가 간 문일이는

《지나 가던 사람이면 빨리 갈 것이지 왜 이 집 앞에서 어물거리냐 말예요.》 하고 날카롭게 쏘아 붙였다.

수상한 사나이는 벙글벙글 웃으며 한 걸음 문일에게 다가 왔다. 문일이는 겁이 나서 화닥닥 뒤걸음 물러 섰다. 만일의 경우에는 뛸 수 있게 차비를 한 셈이다.

수상한 사나이는 더욱 능글맞게 웃으며

《이거 단단히 걸렸군.》

하고 롱지꺼리까지 했다.

약이 오른 문일이는 《이 놈은 틀림 없이 그 놈이다. 걸음걸이도 어제밤 그 놈과 비슷하지 않는가! 이걸 어떻건다? 이 놈을 붙잡아야 할텐데…》 하는 생각으로 흘끔 경팔이를 곁눈짓해 보았다.

이 때 마침 건초를 잔뜩 실은 달구지가 기우뚱거리며 골목 길에 나타났다. 자연 낯선 사나이와 아이들이 갈라졌다. 아이들과 그 사나이 사이로 달구지가 지나 간 것이다. 이윽고 아이들은 눈이 둥굴해졌다.

달구지가 지나 가자 수상한 사나이가 온데간데 없이 살아졌던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이골목, 저골목 뒤져 보았으나 수상한 사나이는 없었다.

《어떻게 생긴 놈이야?》 명길이가 의아한 눈으로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경팔이가 대뜸

《장'대 같이 키가 큰 놈인데 어깨통이 막 이래!》

하며 제 어깨를 서너뼘이나 넓혀 손'짓을 해 보였다.

《말'소린 꼭 빈 독안에서 나는 웅굴은 소리를 내는 놈이였어!》

문일이가 부르르 몸을 떨며 또 적 침을 내뿜었다.

그런데 명길이는 어째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낯선 사람도 올 수 있지 뭐야! 군에서랑 손님들이 적게 온다구?》

하고 넌지시 두 아이들을 바라 보았다.

《그렇게두 경각성이 없다구야!》

경팔이가 화를 냈다.

문일이까지 껴들어 그 놈을 찾아 내야 한다고 안달을 부렸지만 명길이는 여전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하여 경팔이와 문일이들은 아직도 께림직하였지만 더는 우기지 못 하고 천룡이가 위독하다는 바람에 결국 명길이를 따라 가는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래일로 미루자는 것도 듣지 않고 천룡이를 둘쳐 업고 나왔다.

어머니는 대문까지 따라 나오며 거듭 안 됐다구 미안스러워 하였다.

그들이 대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찌궁 하고 대문이 닫기며 덜거덕 비짱을 찌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 왔다.

천룡이를 업고 나선 명길이는 어쩐지 대문 닫는 요란한 소리가 마음에 콱 질렸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기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대문을 나서기가 바쁘게 그렇게 콰당탕거리며 대문을 닫아 거는 법이 어디 있담. 명길이는 천룡이 어머니가 괘씸하기까지 했다.

서늘한 바람을 맞아선지 천룡이는 후들후들 떨기 시작하였다. 명길이는 목덜미에 천룡이의 뜨거운 입 김을 감촉했다.

천룡이는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흐리마리한 정신을 가다듬고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자기를 업고 가는 게 분명했다. 그는 흠칫 놀라며 자기를 업고 가는 아이를 바라 보려고 애를 썼다. 이윽고 그는 자기를 업고 있는 게 명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뒤에서 부축하고 따라 오는 아이들은 경팔이, 문일이들임을 알아 차렸다.

《정신이 좀 들어?》

살뜰한 명길의 목소리였다.

천룡이는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샘 솟아 올랐다. 이윽고 그는 흑흑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좌우 쪽에서 천룡이를 부축하고 따라 오던 경팔이, 문일들도 어째서인지 코'마루가 시큰둥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좋았다.

십리'길을 셋이서 번갈아 업어 가며 그들이 군 병원에 도착한 것은 밤 열 한시였다.

천룡이는 급성 폐염이였다. 의사는 조금만 더 시간이 늦었더라면 아주 위험할 번 했다고 여러 번 되풀이 하였다.

천룡이는 즉시로 입원실로 옮겨졌다.

명길이는 자기들이 교대로 간호한다고 하였으나 의사는 입원실에 들여 놓지도 않았다. 천룡이와 작별할 사이도 없었다.

그들은 한동안 복도에서 서성거리다 별 수 없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한 번 더 천룡이를 보려고 입원실 쪽 창문으로 다가 갔다.

밖은 비가 부실부실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비'물이 흘러 내리는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훔치며 발돋음을 해 가며 입원실 안을 들여다 보았다.

한 쪽 흰 침대에 누운 천룡이의 해쓱한 얼굴이 보였다. 그는 응급 처치를 받고 평온한 얼굴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세 아이들은 비'물에 젖은 얼굴들을 마주 보며 싱긋 웃었다.

동화

수수떡이 낳은 옛말

리원우 　　　　그림 리동춘

언젠가 돌처럼 굳은 빨간 수수떡 속에서 옛말 하나가 태여났답니다. 수수떡은 옛말 하나를 낳고는 하늘 공중으로 윙—하고 날아 갔는데 수염이 하얀 관리 위원장 할아버지 말을 들으면 그것은 머슴 총각 한알때가 너무도 억울하여 그 돌처럼 굳은 빨간 수수떡이 멀리 날아 가라고 홍두깨처럼 굵은 팔뚝을 세 번이나 휘두르다가 윙—하고 팽개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수떡이 하늘 공중으로 날아 가기 시작하자 논에서 벼하고 놀던 푸른 물들은 웬 일인지 출렁출렁 소리치면서 논'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광경을 해도 보고 둑에 서 있던 꽃버들도 보고 논'바닥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뜸부기 부부도 보았답니다.

모두들 통쾌한 눈으로 바라 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찌프린 얼굴로 날아 가는 수수떡과 논에서 뛰여 나오는 물을 흘겨 보며

《야 이 놈 한알때 녀석아, 논'바닥에서 푸른 벼하고 놀고 있는 물을 왜 다시 퍼내는거야? 엉!》 하고 큰 소리로 욕까지 했답니다.

이것이 수수떡이 낳아 놓은 옛말의 실마리랍니다.

◇ 　 ◇

수수떡은 어느 단오 명절 전날 밤 지주 령감네 넓적한 떡판 우에서 태여났답니다.

그런데 수수떡은 성미가 급해서 하루 밤 사이에 돌처럼 굳어졌답니다. 그렇지만 넓적한 떡판 우에선 며칠을 두고 먹어도 굳어지지 않는 찰떡들도 태여났답니다.

명절날 아침이 되자 부엌에서는 여러 가지 맛 있는 음식들이 앞을 다투어 태여났습니다. 스무 개도 넘는 가마와 남비 속에선 각색 음식들이 태여나노라고 풀떡풀떡 하기도 씩씩 푸푸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떡과 음식들엔 1등, 2등, 등수가 붙어 있었답니다.

1등 떡, 1등 음식은 지주 령감네 식구들과 친척들과 높은 손님들이 먹는 것이고 3등 떡, 4등 음식은 머슴 총각들과 농민들이 먹는 음식이였답니다.

떡과 음식에도 이렇게 층층 계급 딱지가 붙어 있는 지주 령감네 집에서 불쌍한 총각 한알때가 머슴을 살고 있었답니다.

지주 령감이 사는 집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인데 앞뒤'벌엔 논도 밭도 많고 큰 고'간, 작은 고'간엔 쌀도 비단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늘 하는 소리가

《우리야 뭐 부잔가요, 하늘이 아는 부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니까 그러는군요.》

그래서 하늘이 아는 큰 부자가 된다고 하면서 소작인들과 머슴'군들을 마소처럼 부려 먹었답니다.

그러면 논밭에선 쌀과 돈이 쏟아졌는데 땀을 뚝뚝 흘리며 이것들을 만들어 낸 일'군들에겐 한 줌만큼 주고 자기는 산'더미만큼 가지군 했답니다. 그래서 지주 령감은 자꾸 부자가 되였습니다.

팔이 홍두깨 같고 가슴이 바람'벽 같은 머슴 총각 한알때는 지주 령감네 바깥채 코'구멍만한 방에서 살면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했답니다.

매일 일이고 시간마다 일이였답니다.

눈 감고 자는 시간만 쉴 수 있었답니다.

그 밖에는 온 동네가 쉬는 명절이 돼야만 쉬는 냄새라도 좀 맡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쉬는 냄새나 맡았지 좀처럼 쉬게 되지 않았답니다. 어쩌다 명절이 되여 하루 푹 쉬려고 하면 지주 령감이 긴 담배'대를 물고 나타나서

《부지런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을 못 들은 모양이로구나. 어서 산에라도 가서 나무라도 해 오너라.》 하고 달랬답니다. 또 어떤 때는

《밥 먹고 놀면 쓰나, 꼴이라도 베여 와야지.》 하고 매일 힘들게 일하다가 하루 쉬는 것을 진두기처럼 달라 붙어 방해를 놓군 했답니다.

어느 단오 명절 날 있은 일이랍니다.

그 날은 온 동네가 쉬는 날이였답니다. 씨름터에서는 씨름을 하느라고 떠들고 그네터에서는 그네를 뛰느라고 치마'바람 소리가 펄펄 했답니다.

그리고 지주 령감네 집에선 등수 붙은 떡과 음식들이 생겨 나느라고 풀떡풀떡하기도 하고 철썩철썩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대청에서는 1 등 떡, 1 등 음식들을 먹느라고 웃음 소리가 일어 났답니다.

그 때 등수 붙은 떡과 음식을 만들어 주느라고 온 한밤을 꼬박 샌 머슴 총각 한알때는 자기 방으로 돌아 와 나무 베개를 베고 털썩 들어 누웠답니다.

《에라, 인제 좀 쉬자. 남들은 눈을 뜨고 먹느라고 떠들썩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눈을 감고 좀 자야 되겠다. 오늘은 명절 날이니 푸욱 쉬자.》

그리고는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사랑'방에서 손님들과 함께 1 등 떡, 1 등 음식을 먹고 있던 지주 령감이 머슴 총각이 자고 있는 방으로 어기적어기적

걸어 나왔답니다.

《원 새파랗게 젊은 놈이 해 뜬 낮에 쿨쿨 자다니. 낮에 자면 엉덩이에 구더기 쓴다는 말도 못 들은 모양이로구나. 어서 일어 나서 논에 나가 물이나 대렴…》

머슴 총각 한알때는 귀'결에 그 말을 들었답니다. 그러나 못 들은 체 하고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 나 앉으면서

《일하지 않고 장창 앉아 있는 량반님네 엉덩이는 그럼 썩었겠네.》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에 지주 령감은 선뜩했지만 쿨렁 기침을 깃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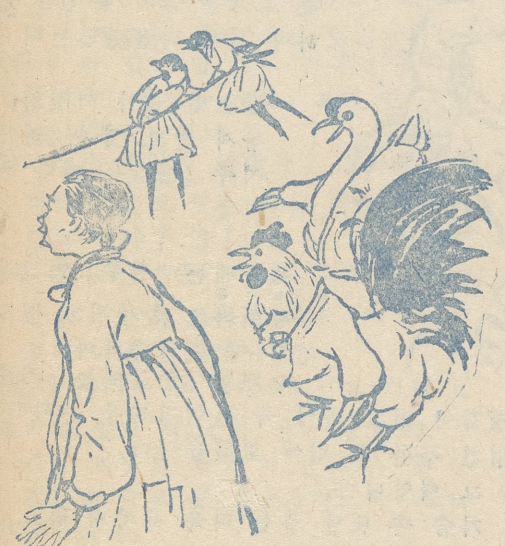
《놀만한 사람이 노는 건 일 없단 말이야. 그 따위 딴전을랑 붙이지 말고 어서 논에 나가 물이나 대라. 날이 가물어 논'바닥이 텄단 말이다. 오늘은 명절이니 점심으로 1 등 떡과 1 등 음식을 무득히 싸서 줄테니 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 나렴…》 하고 막 일으켜 세우려고 했답니다. 머슴

총각 한알때는 속으로 화가 울컥 났지만 일을 안 나갈 수도 없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우뚝 일어 섰답니다.

지주 령감은 안'방 퇴'마루에 앉아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를 쳐다보며

《여보! 마누라, 날 좀 보우. 오늘 같이 좋은 날 우리 머슴 총각이 우리를 위하여 찹쌀 논에 물을 대려 나가겠다네 그려. 그러니 거 착한 머슴 총각에게 1 등 떡 찰떡과 1 등 음식 돼지 고기를 꾹꾹 눌러서 한 그릇 싸 보내라구요.》 하고 소리치며 한 눈을 꿈뻑 했답니다.

《그럽시다.》

머슴 총각 한알때에게 1 등 떡과 1 등 음식을 한 그릇 무둑히 싸서 보내겠다는 말

을 마당에서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다 듣고 심지어 발뒤축에 물어 드는 어린 강아지까지도 다 들었답니다.

《이런 말을 난생 처음 들어 보는걸, 아마 래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뜰거야. 글쎄 지주 령감이 머슴 총각에게 찰떡과 돼지 고기를 싸 주겠다고 말을 하다니, 참 희한할 일이야…》

수탉 아저씨도, 유식한 게사니 선생도, 외국 구경을 많이 하고 돌아 왔다는 제비 아가씨도 지주 령감이 하는 말을 듣고 눈이 둥굴해서 쳐다봤답니다. 그리고는 모두들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고 하면서 고개들을 끄덕끄덕했답니다.

머슴 총각은 우둑뚝 일어 서며

《그럼 일 나가겠소. 제게야 뭐 명절이 있습니까. 저야 1 년 열 두 달 삼백 예순 다섯 날이 다 일하는 날이니까요. 밤을 새고 졸려 조반도 못 먹었는데 점심밥이나 두둑이 싸서 주십시오. 밥 속에서 일할 힘이 나오니까요.》

《아무렴 두둑이 싸 주구말구. 밥 뿐이겠나, 1 등 떡과 1 등 음식을 두둑이 싸 준다니까 그러는군. 그저 찰떡 한 그릇 먹고 찹쌀될 물을 백 섬만 푸고 들어 오려무나. 아 여보 마누라, 어서 무둑이 한 그릇 싸소.》

사람 좋은 머슴 총각 한알때는 이리하여 온 동네가 다 쉬는 명절 날 모내기를 끝낸 논에 출렁출렁 물을 대려고 나갔습니다.

머슴 총각 한알때는 물 웅덩이 언덕에 박아 세운 물'장대에 데룽데룽 매달아 놓은 긴 물 숟가락 채를 두 손으로 들어 쥔 다음 노래를 부르며 물을 퍼 넘기기 시작했답니다.

—물 한 말 넘어 간다.
찹쌀 한 섬 쏟아 다우

—물 두 말 넘어 간다.
찹쌀 두 섬 쏟아 다우.

물은 연방 찹쌀 논으로 넘어 들어 갔습니다. 논'바닥이 터져서 말라 죽게 되였던 벼 포기들은 물'소리가 나는 바람에 너무 좋아서 흐느적흐느적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살았다 살았다.
춤을 추자.

—한알때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얼씨구 좋다.
우리가 살았다.

벼 포기들이 너울너울 춤 추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뜸부기 부부도 논'바닥에 내려 앉더니 점심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

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뜸북뜸북
뜸북 소리가 절로 난
다.

—벼 포기들 춤을 추니
들먹들먹
어깨 춤이 절로 난다.

뜸부기가 노래 부르며 점심을 먹기 시작한 바람에 머슴 총각 한알때는 그제서야 점심 시간이 된 줄 알고 동'둑 꽃버들 가지에 걸어 놓았던 1등 떡, 1등 음식 보자기를 벗겨 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구 팔 다리야. 찰떡 될 물을 백 섬이나 퍼 넘겼더니 팔이 뚝 떨어져 오는구나. 남들은 춤을 추는 날인데 나는 팔 힘이 빠져서 나른한 날이구나.

그렇지만 일 없다. 까짓꺼! 1등 떡 한 그릇 먹어 보자. 떡 속에서 잃어 버린 내 힘을 다시 불러 내야지…》

한알때는 빙그레 웃으면서 침을 꿀떡 삼켰습니다.

그러나 보자기를 풀어 헤친 순간 그는 눈이 둥굴해졌답니다.

(…아니 무슨 찰떡이 이렇게 새빨간가? 아니 이건 돼지 고기가 아니고 소뼈다구가 아닌가? 그래 이것이 1등 떡, 1등 음식이란 말인가?)

한알때는 밸이 울컥 났습니다.

(이건 사람을 업수이 여겨도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이건 머슴을 거므대기 만큼도 여기지 않는 증거구나.)

한알때는 떡'덩이들을 손에 거머 쥔 채 우뚝 일어 서며

《야 이건 정말 사람을 괄시해도 너무하누나. 그래 메마른 찹쌀 논에 물을 댄 사람을 과연 이렇게 대접해야 옳단 말이냐? 그래 이것이 아침 너희놈들의 입으로 직접 말한 바로 그 1등 떡이란 말이냐? 옛다 너희놈들이나 실컷 먹고 빼드러져라…》 하고 소리치며 홍두깨 같은 팔을 세 번이나 휘두르다가 웡—하고 팽개쳤답니다. 그 순간 돌처럼 굳어진 새빨간 수수떡들은 쓰라린 옛말 한 토막을 낳아 놓고 웡! 소리를 치며 하늘 공중으로 날아 가기 시작했답니다. 잊을 수 없는 옛말 하나를 머슴 총각 한알때의 가슴에 남겨 놓고 말입니다. 깊은 가슴에 떨어진 옛말 한 토막은 금시 불'길로 변하여 활활 타올랐답니다.

—참으면 불이 꺼진다.
참지 말고 짓부시라!
지주 령감을 멨따 치
라!

한알때는 지주 령감을 금방이라도 들부시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지주 령감이 없고 팔이 뚝 떨어지도록 논에 퍼 넘긴 푸른 물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입니다.

가슴 속 옛말 불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며 웨쳤답니다.

—터쳐 놓아라!
터쳐 놓아라!
네가 땀 흘리며 퍼 넘긴 푸른 물에서
그 놈들만 먹는 1등 떡이 생겨 나지
못 하게…
터쳐 놓아라!
터쳐 놓아라!
논'둑을 터쳐 놓아라!

한알때는 가슴 속 불이 웨치는 대로 달려 나가 논'둑을 툭 터쳐 놓으면서 소리쳤답니다.

《내가 퍼 넘긴 푸른 물들아! 억울한 내 마음을 알아 다우. 모두들 찹쌀 논에서 뛰여 나와 지주 령감을 짓부시려 가자.》

한알때는 성이 나서 홍두깨 같은 팔뚝 속에 숨어 있던 마지막 힘까지 내여 퍼 넘겼던 푸른 물을 다시 퍼 내기 시작했답니다.

논에서 어린 벼 포기들과 춤을 추고 있던 푸른 물들은 자기 편인 머슴 총각이 지주 령감한테 괄시를 받은 것이 하두 분하여 주루루 콸콸 소리치며 논'둑을 헤치며 흘러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 통쾌한 광경을 붉은 해도 내려다 보고 둑에 서 있던 버들도 내려다 보았답니다.

모두들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한알때 총각을 고무 격려하는 눈으로 바라 보며 빙그레 하고 웃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지주 령감만이 찌푸린 얼굴로 이 광경을 쏘아 보며 큰 소리로 욕을 퍼부었답니다.

《야, 이 놈 한알때 녀석아! 논'바닥에서 푸른 벼하고 놀고 있는 물을 왜 다시 퍼내고 있는 거냐? 엉!》

지주 령감은 머슴 총각 한알때가 정말 물을 푸고 있는지 알아 보려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한알때 총각은 못 들은 체 하고 그냥 물을 넘기다 말고 휙 돌아 서는 길로 그 얄미운 지주 령감을 공중 쳐 들어서 물 웅덩이 흙탕물 속에 풍덩 멨따지르며 소리쳐 주었답니다.

《이 놈아, 1등 떡, 1등 음식을 보내 주어서 참 잘 먹었다. 그런데 논에서 살 물을 왜 다시 퍼 내느냐구? 이 놈아, 네 놈이 보내 준 1등 떡을 너무 잘 먹었더니 힘이 부쩍부쩍 나서 퍼 넘겼던 물을 다시 퍼 낸 거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흙탕물이나 한 바가지 먹고 빼드러져라.》

그러나 지주 령감은 뭐라고 말 한 마디 대답도 못 하고 끄루룩끄루룩 하기만 했답니다. 물 웅덩이 흙탕물에 구겨 박혀 허우적거리며 코'구멍으로 컬컬한 흙탕물을 한 바가지나 들어 마시는 소리였답니다.

그 통쾌한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꽃버들이 만들어 준 그늘에 지주 령감과 머슴 총각 한알때의 얼굴을 한번도 본 일이 없는 새 아이들이 빙 둘러 앉아 있고 그 한 가운데 협동 농장 할아버지가 앉아서 옛말을 하고 있었답니다.

첫 여름 바람이 불고 갈 때 휘늘어진 버들'가지는 지주와 머슴 총각을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자기가 본 이야기도 들려 주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고 그 날 지주 령감이 물 웅덩이에 구겨 박혀 끄루룩거릴 때 너무 통쾌하여 추던 춤을 한 번 덩실덩실 추었답니다.

버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본 순간 가슴에 떨어졌던 옛말이 다시 살아 났던 것입니다.

지금 옛말을 하고 있는 협동 농장 할아버지가 동무들이 보지 못한 바로 그 머슴 총각 한알때랍니다.

그런데 지주 령감 얼굴을 직접 눈앞에 보여 달라구요.

저기 저 푸른 물이 노래하며 흘러 가는 관개 수로를 쳐다보십시오. 바로 저기가 물 웅덩이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저 물'속에서 구겨박힌 지주 령감이 끄루룩 푸푸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례절에 대한 이야기 (3회)

거리와 마을에서 지켜야할 례절

소년단원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거리와 마을 또는 영화관, 극장, 아동 공원, 아동 도서관들에서도 례절과 공중 도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거리와 마을에서 어른들을 만났을 때에는 공손히 인사를 하여야 하며 동무들 호상간에도 소년단 경례를 하여야 합니다.

줄을 지어 가다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대렬을 책임진 책임자의 구령에 따라 전체 동무들이 일제히 인사합니다.

길'가에서 누가 길을 물을 때에는 친절히 대여 드려야 합니다.

길'가에서 떠들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놀음을 놀지 말아야 하며 길을 다니며 무엇을 먹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앞을 질러 가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뒤로 지나 가는 것이 좋고 부득이 앞을 질러 건너 가야 할 때에는《실례합니다.》또는《좀 건너 가도 좋겠습니까?》하고 인사를 차린 후에 건너 가야 합니다.

뻐스나 전차, 기차를 탈 때에는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타야 하며 차 내에서는 로인들과 어른들, 영예 군인들과 애기 어머니들에게 자리를 내여 드려야 합니다.

또한 달리는 차 내에서 창문 밖으로 머리나 팔을 내밀거나, 침을 뱉거나, 수지를 내던져서는 안 됩니다.

차에서 내릴 때에는 밀지 말고 천천히 내려야 하며 내린 다음에는 선 차 앞으로 지나 가지 말고 차 뒤로 다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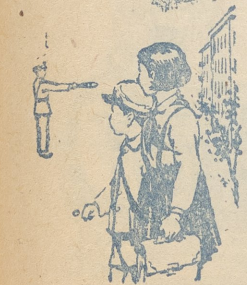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여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도로 다녀야 하며 네거리, 그 밖의 곳에서 길을 가로 건너 갈 경우에는 교통 안전원의 신호에 주의하며 앞, 뒤, 옆을 잘 살피고 차가 오지 않을 때 빨리 건너 가야 합니다.

아동 도서관에서 책을 볼 때에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에게 인사를 한 후 자기가 빌려 볼 책 이름을 말하고 책을 빌려 가진 다음에는 빈 자리에 가서 조용히 앉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에 줄을 긋거나 책을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아동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거나 필요 없이 자주 드나들어 다른 동무들의 독서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책을 다 본 다음에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책을 돌려 드리고《책을 잘 보았습니다.》또는《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하고 돌아 오는 것이 례절 바른 행동입니다.

영화나 연극을 구경할 경우에도 례절을 지켜야 합니다.

극장이나 영화관에 들어 갈 때나 또는 나올 때에는 서로 밀지 말고 순서 있게 줄을 서서 천천히 출입하여야 합니다.

극장 영화관에 들어 가서는 이곳 저곳 쓸데 없이 다니지 말고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거나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나 연극을 감상할 때 일어 선다든가 또는 큰 소리를 치거나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감상하는 데 지장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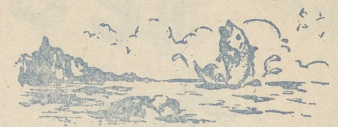
아동 공원에서는 공원의 시설물들을 아끼고 사랑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원의 화초나 나무를 꺾지 말아야 하며 록지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휴지는 반드시 지정된 휴지통에 버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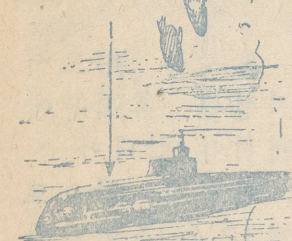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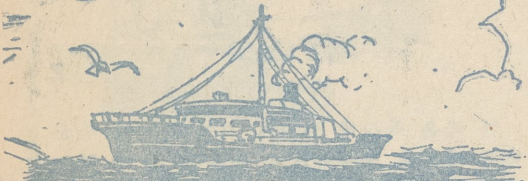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소년단원들이 공부를 잘 할 뿐만 아니라 례절이 바르고 공산주의 도덕 품성이 바른 훌륭한 소년단원이 됩시다.

☆ 이것을 아십니까? ☆

지구 우에 있는 전체 동물의 75%가 물에서 삽니다.

물 속은 륙지에 비하여 자연 환경이 단순하며 사료도 풍부하므로 동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지구 우에 있는 전체 동물의 75%가 물에서 사는 데 그 중에서도 69%가 바다에서 삽니다.

큰 압력과 작은 압력

김 봉 린

동무들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2권《천보산의 용사》에서 우리의 빨찌산들이 습지대에 사다다리를 놓고 건너서 적을 교묘하게 유인하여 가지고 단숨에 때려 눕혔다는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동무들! 왜 항일 빨찌산들은 습지대를 건널 때 사다다리를 리용했을가요?

우리들은 다 같이 물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상기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압력에 대한 공식을 써 놓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P=\frac{Q}{S}$ P=압력, S=면적, Q=장력)

공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무게가 내려 눌러도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면 압력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빨찌산들은 이 법칙을 리용했던 것입니다. 즉 빨찌산들은 그냥 습지대를 건너 가자면 발이 빠질 수 있지만 사다다리를 놓고 건너면 압력이 작아져서 발'자국도 나지 않고 쉽게 건너 갈 수 있다는 것을 타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빨찌산들은 압력에 대한 법칙을 리용하여 교묘한 전술을 생각해 내여 적들을 소멸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작은 압력을 리용한 실례로써는 항일 빨찌산들이 깊은 눈 우에서 행군할 때 설피를 리용한 것이라든지 뜨락또르 또는 땅크의 무한궤도, 건물의 기초를 넓게 하는 것, 자동차의 뒤'바퀴와 기관차의 바퀴를 많이 다는 것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 우리는 언제나 작은 압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압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동무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 흔히 쓰는 압정이라든가 쇠를 따내기 위한 정, 도끼, 륙상 선수들이 신는 스파이크라든가 전공들이 전선'대에 올라 갈 때 리용하는 도구 등등은 큰 압력을 얻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인민 경제의 여러 부문들과 일상 생활에서 큰 압력과 작은 압력을 많이 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흥미 있는 문제를 알아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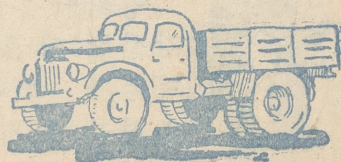
동무들은 액체나 기체 속에 있는 물체에 압력을 작용하게 되면 그 압력은 깊이가 깊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주위를 둘러 싼 공기 층의 제일 밑바닥에서 사는 우리들은 제일 큰 공기의 압력을 받게 되며, 그 크기는 매 평방 센치 메트르 당 약 1,034 kg중과 같습니다.

만일 동무들의 몸의 표면적을 $5000cm^2$라 할 때 동무들은 약 5 톤중만한 힘을 공기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죽지 않을가요? 그것은 사람의 혈관이라든가 세포 조직들이 공기의 압력과 같은 압력으로 호상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로켓트를 타고 높이 올라 간다면 공기의 압력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약 1,300 km 높이에서부터는 공기의 압력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가요?

작은 압력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혈관이 파괴될 수 있으며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숨을 들이 쉬기가 곤난하여 살지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비행을 위해서는 안팎이 전혀 통하지 않게 밀봉한 기밀실을 리용하든가 특별한 비행복을 입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큰 압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하여 봅시다.

동무들은 바다 속에 깊이 들어 갈수록 대단히 큰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의 압력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잠수함도 250 m 이상은 들어 가지 못 합니다. 깊은 바다 속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두터운 유리 창문과 견고한 강철로 만든 수중 탐색선을 리용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수중 탐색선으로 사람이 들어 간 깊이는 4 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깊은 바다 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큰 압력에 의하여 죽지 않을가요?

그것은 물'고기 내부의 액체들과 조직이 물의 압력과 동일한 압력으로 주위의 물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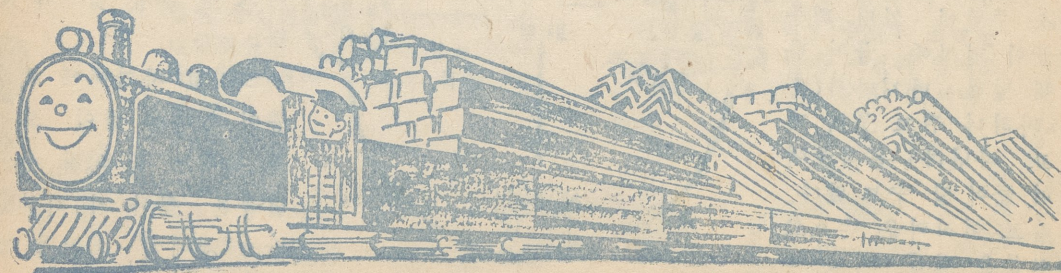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깊은 물에 사는 고기를 얕은 물에 가져 오면 죽어 버리고 맙니다.

만일 잠수함도 그 속에 물이 가득차게 하거나 내부의 압력이 주위의 물의 압력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깊은 곳에 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기관은 40 m 깊이까지의 물'속에서 견디여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40 m의 깊이에서의 물의 압력은 약 4 kg중/cm^2와 같습니다. 즉 공기 중에서 보다 4 배만한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만약 특별한 보호 장치를 하지 않고 40 m 이상 깊은 곳에 들어 간다면 사람의 가슴은 물의 압력에 눌리여 견디지 못 하게 됩니다.

40 m 깊이에서는 70 분 이상은 들어 가 있기가 힘들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리마 기수들인 수풍 발전소의 백 신일 아저씨는 땜에서 물이 새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40 m 깊이의 물'속에 들어 가 혁명 가요를 부르면서 110 분이나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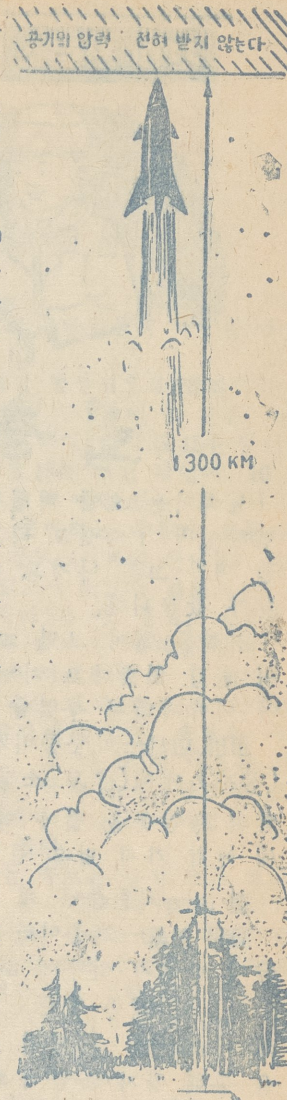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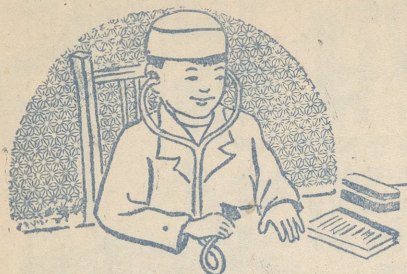
소년단원 동무들, 그럼 다음 문제에 대하여 해답하여 보십시오.

첫째, 어머니를 도와 물을 기를 때 한번은 물 바께쯔의 나무 손잡이를 쥐고, 다음에는 나무 손'잡이는 쥐지 않고 철사만 쥐고 운반하여 보면서 어느 경우에 손'바닥이 더 아프겠는가를 실험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가를 설명하여 보십시오.

둘째, 우리 나라 로동자들이 가장 큰 수압기로써 얼마만한 힘을 내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사용되는가를 알아 보십시오.

세째, 태평양의 가장 깊은 곳은 10,863 m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다 밑의 압력이 얼마나 크겠는가를 계산하여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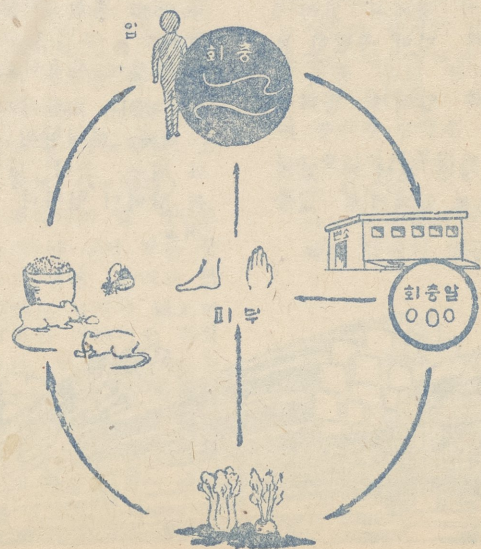
꼬마 진료소

회충증

철석이는 요즘 며칠째 갑자기 입맛이 변하면서 구역질도 나고 식사는 잘 해도 곧 배가 고파 나기도 하여 꼬마 진료소로 찾아 갔습니다.

진찰을 하여 보던 꼬마 의사는 회충증이 틀림 없겠다고 하면서 회충증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꼬마 의사—회충증이란 회충이 사람의 장(창자) 내에(주로 소장에서) 살면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빨아 먹으면서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병이란다.

철 석—회충증엔 왜 걸리게 되니?

꼬마 의사—회충이란 놈은 사람의 창자 속에 살면서 하루에 30 만 개의 알을 낳는단다. 이 회충 알들은 대변과 함께 밖으로 나오는데 사람의 입을 통해 창자에 들어 가 그것이 깨나면 회충증에 걸리게 된다. 회충알이 있는 인분을 잘 썩이지 않고 비료로 준 밭에서 자란 야채들을 깨끗이 씻지 않고 먹거나 혹은 변소 주변에 있던 회충 알들이 먼지에 묻어 바람에 날려 다니다가(혹은 파리나 쥐도 묻혀 가지고 다닌다) 음식물에 묻어 들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어지러운 손으로 음식물을 집어 먹을 때에 손에 묻었던 회충알들이 창자 속에 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회충알은 피부를 뚫고 들어 가기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더러운 데서 놀거나 또는 실습지나 채소밭 같은 데서 맨발로 일하거나 함부로 옷을 벗어 던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

철 석—회충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 나니?

꼬마 의사—식사는 제대로 하는데 배가 고파나기도 하며 입안에 군침이 돌거나 식욕이 떨어지군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도 아프고 구역질도 난단다.

철 석—그러니 회충은 사람에게 몹시 해롭구나.

꼬마 의사—그 뿐만 아니지, 회충이란 놈은 틈사리로 기여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서 창자 속을 다니다가도 충수(맹장) 속에 들어 가 맹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간장 속에 들어 가 큰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단다. 또한 장티브스나 적리에 걸린 사람이면 창자가 헐어서 얇아진 부분을 뚫어 복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때로는 수십 마리가 한데 엉켜 창자를 꽉 막아 생명을 위협하게 한단다. 특히 회충증에 걸리면 기억력이 나빠지고 몸이 자라는데 장애를 준단다.

철석—그러면 어떻게 하면 회충증을 예방할 수 있을가.

꼬마 의사—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음식물을 깨끗이 씻어 먹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야채를 잘 씻어 먹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식사 전 혹은 작업을 한 후라든가 변소에 갔다 온 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회충증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는 곧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 가 진찰을 받고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 한단다.

벽보주필들이 하여야 할 일

김 봉 선

벽보는 소년단원들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고 소년단 생활과 공부를 잘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여러 가지 해답을 주며 소년단원들의 생활을 제때에 알려 주는 거울과 같다.

벽보는 소년단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이렇게 중요한 벽보를 바로 단, 분단의 벽보 주필들이 책임 지고 있다.

그러면 벽보 주필들이 자기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벽보 주필은 매월 편집 계획을 잘 세우고 편집 위원(단 벽보 편집 위원 3~7 명, 분단 벽보 편집 위원 3~5 명)들의 취미와 힘에 맞게 분공을 주어서 벽보를 중단함이 없이 발간해야 하다.

단 벽보는 매월 1~2 회, 분단 벽보는 매월 2 회 이상 정상적으로 내며 속보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이 좋다.

벽보와 속보는 반드시 소년단원들의 마음에 맞게 되여야 한다. 벽보가 잘 되자면 벽보 편집 계획이 잘 되여야 한다. 계획에는 소년단원들에게 그 때 그 때 알려 주어야 할 일,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적인 동무들의 이야기, 그 밖에 재미 있는 과학 이야기, 작문, 동요, 동시, 속담, 수수께끼 등 그 벽보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 가야 한다 .

그리고 벽보 제목을 소년단원들의 마음에 맞도록 흥미 있게 달며 그림과 색갈이 내용에 맞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야 한다. 벽보는 제목이 눈에 잘 띄게 만들어져야 한다. 큰 제목과 그에 따르는 작은 제목들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며 내용에 맞게 그림을 잘 배합하는 것이 좋다. 벽보를 잘 만들자면 통신원들이 많아야 한다. 단에서는 각 분단에 1 명씩, 분단에서는 각 반에 1 명씩 통신원들을 두고 그들이 소년단원들의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때에 써 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벽보가 소년단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벽보 주필은 매달 정상적으로 발간하는 벽보 외에 기념일이라든가 그 밖에 뜻 깊은 날에는 특간호를 발간해야 한다. 만약 8.15를 맞이 하여 특간호를 낸다면 8.15는 어떤 날인가, 10 대 과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로동자 아저씨를 찾아 상봉을 준비하는 내용과 로동자 아저씨들과 경쟁을 걸고 《이겨야 한다》고 애쓰는 내용을 실을 수 있으며 8.15와 관련되는 《문제풀이》, 《알아 맞히기》와 시, 동요, 써클의 밤, 악기 연주회, 체육 유희 등 계획을 알려 주어 8.15를 보다 즐겁게 지내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벽보 주필은 번개 같이 새 소식을 전해 주는 속보도 발간해야 한다. 속보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때 그 때 나오는 당 결정, 수상님의 말씀, 국제 소식, 남조선 소식들과 소년단원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범적 사실들을 제때에 실어야 한다.

새 소식을 알리는 속보는 종이 또는 흑판으로 소년들이 잘 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이 밖에도 벽보 주필은 《소년 신문》, 《소년단》《아동 문학》등 많은 책을 읽게 하며 소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벽보 전람회와 그림 전람회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동무들을 소개하는 영예 게시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직관 사업을 잘 해야 한다.

벽보 주필은 벽보와 속보, 그림들을 만들어 붙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벽보 주필은 벽보 내용을 소년단원들에게 알려도 주고 벽보에 대한 의견도 받아 다음 호를 더 잘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간된 벽보는 1 년 간 사업을 총화할 때까지 소년단실에 잘 보관하여 교양 자료로 리용도 하고 또한 해 일을 마감짓는 데도 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벽보 주필은 소년단원들로부터 선거 받은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실천 하여야 한다.

(동요)

우리 마을

고향 마을 앞 벌에
뜨락또르 퉁퉁퉁…
고향 마을 앞길로
자동차 씽씽.

옛날엔 지주네 집
소방울 소리만 들렸는데
지금은 고향' 벌에
기계 소리 요란해요.

멍에 끌어 농사 짓던
부연 마을 사람들
기계로 밭을 갈고
기계로 씨 뿌려요.

협동화된 고향' 벌
기계화의 고향' 벌
뜨락또르 퉁퉁 줄 지어 달리며
써레를 끌어요, 논 김을 매요.

올해에도 협동' 벌엔
오곡백과 무르익어
자동차 씽씽 쌀가마니 나른대요
집집마다 나른대요.

함남 신흥군 부연 중학교 단 지 단히

(작문) (소년신문 지상 작문 발표회 가작 당선 작품)

내고향 백두고원

아침 저녁 꿩이 우는 수풀을 지경에 두루고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고운 천처럼 흘러 가는 여기 백두 고원은 내 고향 입니다. 옛날에는 대낮에도 노루 사슴들이 진펄에 내려와 한가로이 풀을 뜯었답니다. 가난에 쪼들린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양지산 기슭에 단간 초막을 치고 살았답니다. 벌방에 살던 우리 아버지도 일본놈들과 지주놈들의 착취를 못'이겨 여기에 오시였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백두 고원은 그런 곳이 아니랍니다. 그전 날 벌방 사람들이 산'골이라고 나무라던 여기에 오늘은 수상님이 손수 이름 지으신 국영 5 호 농장이 자리 잡고 로동당의 빛'발 아래 고원엔 해마다 풍년이 온답니다. 집집마다에서 라지오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내 고향 백두 고원엔 해도 달도 먼저 떠오른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찾아 오시던 오솔'길로는 자동차가 쌀을 싣고 부릉부릉 달립니다. 산'비탈 뙈기밭을 갈던 소들은 멍에를 영영 벗어 던지고 목장의 젖소로 변하였습니다. 해마다 감자 꽃이 곱게 피는 넓은 벌에서 뜨락또르가 부릉부릉 밭을 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이 곳에 오늘은 훌륭한 중 학교까지 세워져 여기서 우리들은 마음껏 배우며 뛰놀고 있습니다. 가난에 쪼들리던 아버지의 옛말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시 한 번 느껴 보군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김 일성 원수님의 항일 유격대가 압록강을 넘나 드시며 일제와 싸우시던 유서 깊은 전적지 입니다. 나도 어서 커서 우리의 선렬들이 일본놈들과 피흘리며 싸워서 찾아 준 내 고향 백두 고원을 사회주의 락원으로 꽃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량강도 삼지연군 홍암 중학교
중등반 2학년 리 춘옥

(동요)

나는 무엇이 될가

우리우리 형님은
기계 기사고
우리우리 누나는
농산 기순데
나는요 무엇이 되면 좋을가?

형님은 날더러
기계 기사 되라 하고
누나는 날더러
농산 기사 되라 하니
나는 정말 무엇이 되면 좋을가?

기계도 운전하고
농사도 하는
뜨락또르 운전수가
나는 될테야
고향 마을 달릴테야

고향 마을 앞벌로
퉁퉁 달릴 그때면
형님도 누나도
좋아서 싱글벙글
아버지, 어머니도 춤추시겠지.

황해북도 신계군 은점 중학교
3학년 1반
리 재신

(우화)

너구리의 의사 공부

꼬마 너구리 매일 의사 공부 시작했네
—덩굴 아래 다래는 신경통에 약이요,
바위 밑에 가재는 눈병에 제일이라
석삼년을 졸졸 외워 공부 했다네.

우수수 잎 지는 어느 가을 날,
너구리 엄마는 병들었네.
눈곱이 끼고 쇠약해진 엄마 너구리
새끼더러 자기 병 고치라 했네.

꼬마 너구리 다래 따러 떠났네.
숲속 나무 우로 뻗어 오른 다래덩굴 모르고
진종일 고생했네, 삼년 공부 허사라네.

다음 날, 너구리 가재 잡이 떠났네
풀 한 포기 없는 산에 올라
크고 작은 바위 밑을 샅샅이 뒤졌으니
물에 사는 가재 산에 어찌 있을가?

해도 쨍쨍 바람도 선들 선들
엄마 병도 못 고친 제 신세 탓하며
꼬마 너구리 머리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네.
—졸졸 외운 삼년 공부 쓸모 없는 것이로군!

그렇다!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워
쓸모 있는 지식을 쌓자
《글뒤지》가 되지 말자.

자강도 전천군 운송 중학교
중등반 3학년 3반
정 용히

홍길동 (제8회)

신 구현

(93) 길동의 활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활발해 갔습니다. 길동은 대낮에 초헌(대신이 타는 가마)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혹은 고을 원들에게 미리 통지를 내고 쌍가마를 타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또는 암행 어사가 되어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관리와 지주놈들을 처단해버리라고 왕에게 글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근심 걱정에 싸여 리 흡이 길동을 잡았다는 소식 있기만 기다리는 판인데 리 흡은 오도 간 데 없고 문경에 모였던 군졸들은 돌아 온 것도 있지만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버린 것이 많았습니다.

(94) 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놓고 호령을 하였습니다.
《길동이 팔도로 다니며 장난이 무쌍하되, 아무도 잡지 못 하니 나라 망신이로다.》 이 때 팔도 감사가 왕에게 올리는 글을 한 아름 안고 들어 와서 왕에게 또 올리였습니다. 팔도에서 길동이 장난한다는 글들이였습니다.

왕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 놈이 아마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그래 이 놈의 근본을 짐작이라도 할 신하가 하나도 없단 말인고》
하고 말하였습니다.

(95) 이 때 좌포장 강 맹이 머리를 꼬아 박고 말하였습니다.
《길동은 이전 리조 판서 홍모의 아들이요. 병조 좌랑 홍 인형의 동생이오니 그 부자를 부르서 친히 따지시면 자연 알으시리다》.

왕은 노여워서 이런 말을 왜 이제야 하느냐고 야단입니다.

(96) 왕은 홍 판서는 당장 잡아 가두게 하고 인형은 잡아 들이여 문초하였습니다. 깜쪽 같이 숨겨 오던 일이 이렇게 드러날 줄을 홍 판서 부자는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97) 왕은 책상을 치며 인형을 꾸짖었습니다.
《길동이란 도적이 너의 동생이라 하니 어찌 그냥 두어 나라의 큰 화근이 되게 하나뇨, 네 만일 빨리 잡아 들이지 아니하면 너의 부자를 길동과 더불어 엄법에 처할지라 빨리 잡아 들이여 나의 근심을 덜게 하라》.

인형은 황송해서 엎드리여 죽을 죄를 지었노라고 빌며 길동이 때문에 병이 유독한 아버지를 용서하면 반드시 길동을 잡아들이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98) 그리 하여 왕은 홍 판서를 용서하고 인형에겐 경상 감사의 벼슬을 주어 일년 이 내로 길동을 잡아 드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인형은 경상도 감영으로 내려 가서 길동이 홍씨 가문과 병든 아버지를 위하여 자수하라는 글을 내붙였습니다.

(99) 인형은 매일 길동이 자수 해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길동이 나귀를 타고 〈하인〉 수십명을 거느리고 감사를 찾아 왔습니다. 인형은 그의 손목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길동아, 네가 집을 나간 후 아버님께서는 너를 근심하여 곡산모를 내치시고 병환까지 나시여 고생이신데 너는 어찌 도적이 되여 나라에 큰 죄를 짓느뇨?》

인형은 길동을 잡기 위하여 왕이 자기를 경상 감사로 보낸 이야기며, 길동을 잡으면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한 왕의 이야기를 해가며 서울로 같이 가자고 달랬습니다.

(100) 길동은 엄숙하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천하기 그지없는 길동이 감영을 찾아 온 것은 홍씨 가문과 아버님을 구하고자 함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으리까. 당초에 천한 길동을 위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하며 간악한 무리로 하여 저의 천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던들 어찌 이렇게 되였으리까. 지나 간 일을 말해 쓸데 없으니 저를 묶어 서울로 보내소서》

(101) 인형은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초란이 짓이기는 하였지만 어머니와 함께 자기도 길동이를 죽이는데 찬동하였고, 초란이를 도와 나섰던 때문입니다. 길동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인들을 시켜 힘센 장교를 불러 들이며 포승으로 묶으라고 하였습니다.

(102) 인형은 이를 알고 한편 슬퍼하고 한편 왕에게 글을 올리고 길동을 죄인 수레에 실어 힘센 장교 십 여 명을 붙이여 서울로 보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 가난한 백성들은 길이 메도록 모여 들어 모두가 안타까와하고 슬퍼하였습니다.

(103) 궁궐 안에서는 큰 야단이 일어 났습니다. 그것은 팔도 감사가 저마다 꼭 같은 홍 길동을 잡아 올리였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진짜 홍 길동이 아니라고 싸웁니다. 왕은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어 홍 판서를 불러 들이여

《자식 알아 내기는 아버지만 한자 없으니 여덟 도적 가운데 그대 아들을 찾아 내라》고 엄명하였습니다.

(104) 길동은 왼 쪽 다리에 붉은 점이 있다고 아뢰고 홍 판서는 여덟 길동을 꾸짖는 것입니다.

《길동아, 너 우로는 임금이 계시고 아래로 네 아비 있거늘 이렇듯 큰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끼지 말라》.

홍 판서는 겨우 말을 마치더니 피를 토하고 기절하였습니다.

여덟 길동이 일시에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환약 한 개씩 내서 입안에 떨구니 홍 판서는 인차 깨 났습니다.

(105) 여덟 길동은 눈물을 거두고 왕 앞에 엎드리여

《아버지와 나라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어찌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오리까 저는 본래 천한 인간이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 하여 원한이 뼈에 사무쳤기로, 집을 버리고 팔도를 헤매다닙니다. 여러 고을 수령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자들을 끼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뜻 있는 사람끼리 《활빈당》을 만든 것이 나라의 큰 걱정을 끼치게 되였습니다. 모두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옵고 또 머잖아 떠나 갈 곳이 있사오니 임금께서는 저를 잡으라는 명령을 거두시옵소서》.

하고 일시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넘어진 여덟 길동을 자세히 보니 다 짚으로 만든 가짜 사람이였습니다.

(106) 왕은 한편 놀랍고 한편 노여워 진짜 길동을 잡아 들이라는 명령을 또 다시 팔도에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서울의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붙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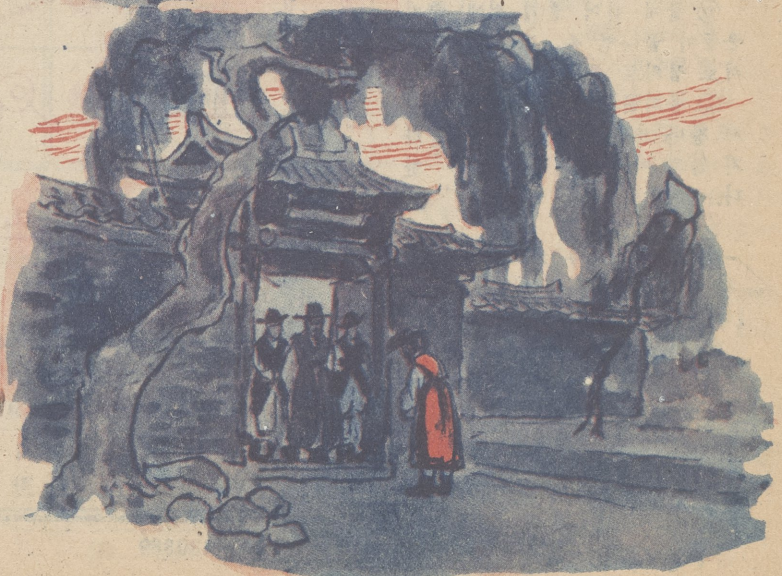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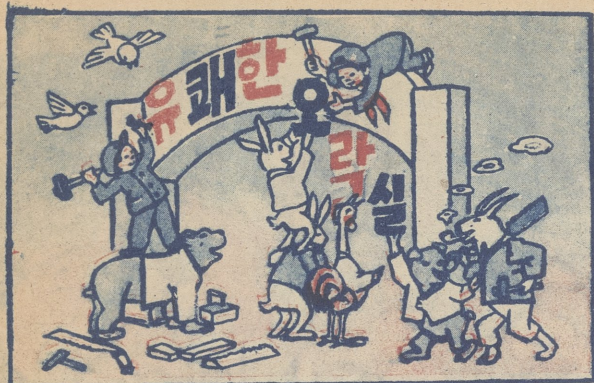
《홍 길동은 아모리 하여도 잡지 못 하리니 병조 판서를 시켜 주면 잡히리라》

(병조 판서는 나라의 무력을 다스리는 관청의 장관이며 왕의 극진한 신임과 사랑을 받는 량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벼슬입니다.) 왕은 도적을 잡으려다가 잡지 못 하고 도리여 도적을 병조 판서를 시키는 것은 나라의 체면 문제라 해서 거절하고 경상 감사 인형에게 어서 길동을 잡아 들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107) 길동을 잡으라고 인형은 각 고을 원들을 독촉하고, 원들은 부하들과 백성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길동이 홀연히 나타나서 인형에게 진짜 길동이오니 아무 념려 말고 묶어서 서울로 보내라고 말하고 왼쪽 다리의 붉은 점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진짜 길동이 틀림 없으니 놓쳐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한 인형은 한편 왕에게 글을 올리고 한편 길동의 사지를 쇠사슬로 꽁꽁 묶어 죄인 수레에 싣고 힘 센 장교 수십 명을 붙이여 서울로 올려 보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물 속에서의 놀음)

《물 속에 뛰여 돌었다가 돌아 오기 경주》

1. 준비할 것.

㉠ 얕은 강'가, 호수'가, 바다'가에서 20～25 m 거리의 물 가운데에 5 m 간격을 두고 두 곳에 기'발로 표식하는 목표를 세우거나 또는 키가 크고 헤염을 잘 치는 동무를 세워 둔다.

㉡ 물 가운데 학생이 서는 곳은 미리 물의 깊이를 알아 보고 위험하지 않게 해야 한다.

㉢ 학생이 서는 곳은 처음에는 허리 높이의 깊이에 정하고 다음에는 가슴 높이의 수심을 정한다.

㉣ 물에 뛰여 들기 전에 팔, 다리, 허리, 목, 몸통 운동 등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는 동시에 손목, 발목 운동을 충분히 한다.

㉤ 물에 뛰여 들기 전에 준비 운동이 끝나면 손, 발, 몸통의 순서로 점차로 물에 몸을 적신다.

㉥ 유희를 시작하기 전에 물에서 장난 또는 위험한 동작을 하지 않게 미리 주의를 주어야 한다.

2. 유희 방법.

㉠ 강'가, 호수'가, 바다'가에서 5 m 간격을 두고 두 편으로 (같은 인원수로) 나누어 세운다.

㉡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두 편의 선두가 물에 뛰여 들어 가 목표물을 돌아서 다시 뛰여 나와 자기 편 다음 동무에게 손을 치면 다음 동무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 또한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물에 뛰여 들어 가 물 가운데서 뛰거나 걷거나 헤염을 쳐서 목표물을 돌아 와서 다음 동무의 손을 치면 다음 동무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 물 가운데 선 동무는 유희자들이 깊은 곳에 들어 가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 이렇게 계속하여 먼저 끝난 편이 승리한다.

3. 류의할 점.

㉠ 될수록 가슴 높이보다 더 깊은 곳은 피하여야 한다.

㉡ 전체 유희자들은 물에 뛰여 들어 간 유희자를 잘 감시하도록 한다.

㉢ 유희가 끝난 유희자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팔, 다리, 몸통 등 간단한 운동을 자체로 하도록 한다.

현상 문제

정숙이는 영자에게 《나는 책상 12 개를 가지고 교실의 네 벽에 각각 네 개씩을 대여 놓았다.》 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가요?

★ 5호 현상 문제 당선자

강원도 이천군 은행정 중학교 김 희숙
황북도 곡산군 칠양 중학교 김 동운
평북도 운산군 운산 중학교 박 정옥
평남도 온천군 서화 중학교 리 영숙
자강도 고풍군 고풍 중학교 김 형일
량강도 백암군 연암 중학교 유 영신

★ 5호 현상 문제 해답

△백마 저수지, 매봉 저수지, 연풍 저수지, 구암 저수지, 어지돈 저수지.

△강계청년 발전소, 독로강 발전소.

★ 6호 현상 문제 해답

두 주전자의 입은 똑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주전자에 담기는 물의 량은 같습니다.

★ 6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남도 북창군 남상 인민 학교 손 봉선
황남도 삼천군 수상 중학교 김 순덕
황남도 허천군 장평 중학교 리 정희
함북도 종성군 산성 중학교 김 광선
자강도 동신군 동신 중학교 김 수영
강원도 원산시 광석 중학교 김 동식

맞추기 놀음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3년 제 8 호 (총 166 호) 편집 위원회
1963년 7월 25일 인쇄 1963년 8월 1일 발행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389 값 25 전

수기 신호법

자모	모음	숫자	신호	이동
ㄱ	ㅏ	1	호 출	우 로 (이동하라)
ㄴ	ㅑ	2	응 답	좌 로 (이동하라)
ㄷ	ㅓ	3	반 복 (다시)	우 쪽 (올라가라)
ㄹ	ㅕ	4	중 계	아 래 (내려가라)
ㅁ	ㅗ	5	쌍받침	
ㅂ	ㅛ	6	수'자	
ㅅ	ㅜ	7	략 어	
ㅇ	ㅠ	8	괄 호	
ㅈ	ㅡ	9	대 기 (기다리라)	
ㅊ	ㅣ	0	본 문	
ㅋ			구 분	
ㅌ			불렸다 (모르겠다)	
ㅍ			송 신 (끝)	
ㅎ			해 신 (알았다)	

수기 규격

2 cm
10 cm
45 cm
40 cm

해 설

《호출》 —응답할 때까지 한다.

《응답》 —2～3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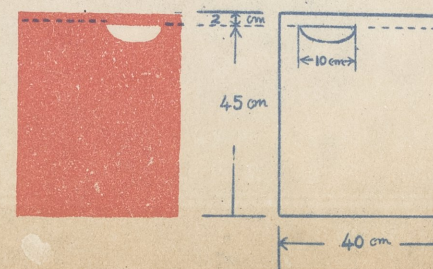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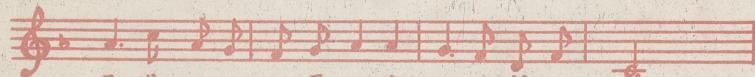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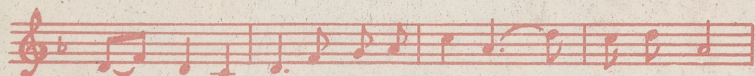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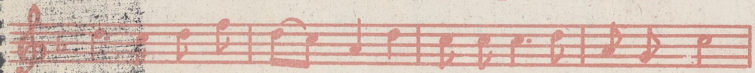
《중계》 —중간에서 전달할 때 한다.

《쌍받침》 —(까)는 (가)를 쓰고 련이어 한 다음에 손을 붙인다.

《수'자, 략어, 괄호, 본문, 구분》 —그 문장 전에 꼭 해야 한다.

《반복》 —수신자가 받은 문장 내용이 잘 리해하기 어려울 때 한다.

《모르겠다》 —매 글자 단어에서 즉시에 모르겠다하여 다시 요구 함으로써 송수신의 시간성,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좌, 우, 상, 하, 이동하라》 —수신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동작이 정확하여야한다.

내 고향 바다
정답게
윤동향 요
아침해'님 두리둥실 솟아오르는
금빛 파도 아름다운 내고향바다
김— 일성 원수님이 찾아— 오시여
저 바다를 사랑하라 말씀— 하셨죠
(후렴) 아름다운 저— 바다 사랑하는 저바다
나도 나도 어서 자라 저바다로 갈래요
② 고기' 배를 선단 무어 달려 나가면
갈매기도 좋아라고 춤 추는 바다
바다 보물 많고 많은 우리 바다는
영웅 누나 자라난 고향이라오.
(후렴)